

2016 글로벌 한식·외식 산업조사 결과보고서
- 통합요약본 -

2016. 12.

[목 차]

1. 거시 지표	1
1.1 국가/도시 지표 비교	2
2. 중국	9
3. 홍콩	18
4. 대만	21
5. 인도네시아	25
6. 베트남	29
7. 싱가포르	33
8. 태국	36
9. 미국	40
10. 일본	47
Ⅱ. 외식 공급자 지표	51
Ⅲ. 외식 소비자 지표	60
Ⅳ. 한식 공급자 지표	74
Ⅴ. 한식 소비자 지표	84

1. 거시 지표

1.1 국가/도시 지표 비교

가) 국가 주요지표 비교

[국가 주요 거시 지표 1]

구분 도시	인구 수			경제성장률			GDP	1인당 GDP
	2010년	2015년		2010년	2015년		2015년	2015년
	만 명	만 명	CAGR	%	%	CAGR	10억 달러	달러
중국	134,091	137,462	0.5%	10.6%	6.9%	8.3%	10,866	7,905
홍콩	707	730	0.6%	6.8%	2.4%	3.6%	310	42,466
대만	2,316	2,349	0.3%	10.6%	0.8%	3.9%	524	22,307
인도네시아	23,850	25,546	1.4%	6.2%	4.8%	5.6%	862	3,374
베트남	8,693	9,170	1.1%	6.4%	6.7%	6.0%	194	2,116
싱가포르	508	554	1.7%	15.2%	2.0%	5.8%	293	52,888
태국	6,640	6,796	0.5%	7.5%	2.8%	3.7%	395	5,812
미국	30,942	32,157	0.8%	2.5%	2.4%	2.1%	17,947	55,811
일본	12,760	12,682	-0.1%	4.7%	0.5%	1.3%	-	-

□ 인구 수

- 조사 국가 중 중국이 2015년 기준 13억 7,462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함. 반면 싱가포르는 동년 기준 554만 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수를 기록하였음.
- 또한 2010년~2015년 6개년 간 가장 높은 연평균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역시 싱가포르였으며 일본은 동기간 -0.1%로 2010년 대비 약 78만 명 가량 인구가 감소함.

□ 경제성장률

- 조사 국가 중 중국이 2015년 기준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조사됨. 반면 일본은 동년 기준 0.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2010년~2015년 6개년 간 가장 높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역시 중국으로 8.3%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낮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또한 일본으로 매년 0.5%씩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됨.

□ GDP

- 조사 국가 중 미국이 2015년 기준 17조 9,47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의 GDP를 기록함. 또한 중국이 동년 기준 10조 8,66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서 조사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GDP를 기록하였음.
- 반면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동년 기준 각각 194억, 293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GDP가 가장 낮은 국가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음.

□ 1인당 GDP(GDP per capita)

- 조사 국가 중 미국이 2015년 기준 55,811달러의 1인당 GDP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의 1인당 GDP를 기록함. 또한 싱가포르가 동년 기준 52,888달러의 1인당 GDP를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서 조사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GDP를 기록하였음.
- 반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동년 기준 각각 2,116달러, 3,374달러를 기록하여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국가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음.

[국가 주요 거시 지표 2]

구분	가처분 소득	GDP/가처분 소득	식비 지출액	가처분 소득/식비 지출액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			한국인 현지국가 방문자수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1	2015		2010	2014	
	달러	%	달러	%	만 명	만 명	CAGR	만 명	만 명	CAGR
중국	4,700	59.5%	639	13.6%	131	433	34.8%	408	418	0.6%
홍콩	33,671	79.3%	3,843	11.4%	0	52	0.0%	89	125	8.9%
대만	14,400	64.6%	1,659	11.5%	43	52	4.9%	22	53	24.9%
인도네시아	2,099	62.2%	618	29.4%	12	19	11.7%	28	33	3.9%
베트남	1,520	71.8%	284	18.7%	11	16	11.4%	50	83	13.8%
싱가포르	29,345	55.5%	7,368	25.1%	12	16	6.5%	36	54	10.5%
태국	3,290	56.6%	828	25.2%	30	37	4.7%	81	112	8.5%
미국	37,077	66.4%	4,576	12.3%	66	71	1.8%	111	145	7.0%
일본	22,940	0.0%	2,801	12.2%	33	184	-13.5%	243	276	3.1%
평균	-	-	-	17.7%	-	-	-	-	-	-

□ 가처분 소득

- 조사 국가 중 미국이 37,077달러의 가처분소득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의 가처분소득을 기록한 나라로 조사됨. 이어서 홍콩이 33,671달러로 미국의 뒤를 이었음.
- 반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인당 GDP순위와 동일하게 각각 1,520달러와 2,099달러로 조사 국가 중 가처분 소득이 가장 낮은 두 국가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음.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 국가 중 홍콩이 79%의 수치를 기록하며 GDP 대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음. 이어서 베트남이 72%의 수치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GDP 대비 가처분 소득이 높은 나라로 조사됨.
- 반면 싱가포르와 태국은 각각 55%, 57%의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을 기록하며 조사 국가 중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두 국가로 이름을 올림.

□ 식비지출액

- 조사 국가 중 싱가포르가 4,576달러의 식비지출액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의 식비를 지출한 국가로 조사됨. 이어서 미국과 홍콩이 각각 4,576달러, 3,843달러로 싱가포르의 뒤를 이어 식비지출액이 높은 나라로 조사됨.
- 반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284달러, 618달러의 식비지출액만을 기록하며 조사 국가 중 식비지출액이 가장 낮은 두 국가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음.

□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 국가 중 인도네시아가 25.1%의 수치를 기록하며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지출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음. 이어서 태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25.2, 25.1%의 수치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지출이 높은 나라로 조사됨.
- 반면 홍콩과 대만은 각각 11.4%, 11.5%의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비율을 기록하며 조사 국가 중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비율이 가장 낮은 두 국가로 이름을 올림.
- 또한, 조사 국가 중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평균은 17.7%였으며 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순서대로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의 4개국으로 타 국가 대비 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순서대로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의 5개국으로 타 국가 대비 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

- 조사 국가 중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는 2015년 기준 중국이 433만 411명으로 가장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함. 이어서 미국이 동년 기준 183만 7,782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함.

- 반면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각각 16만 153명, 16만 2,765명으로 조사 국가 중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가 가장 낮은 두 국가로 이름을 올림.
- 한편 2011년~2015년 6개년 간 연평균 한국 방문자수 성장률을 살펴보면, 중국이 34.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해당 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반면 일본은 13.5%의 연평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1년 대비 2015년 방문자수가 약 50%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한국인 현지국가 방문자수

- 조사 국가 중 한국인 현지국가 방문자수는 2014년 기준 중국이 418만 1,800명으로 가장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함. 이어서 일본이 동년 기준 275만 5,313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함.
- 반면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2014년 기준 각각 32만 8,122명, 52만 7,684명으로 조사 국가 중 한국인 현지국가 방문자수가 가장 낮은 두 국가로 이름을 올림.
- 한편 2010년~2014년 5개년 간 연평균 한국인 현지국가 방문자수 성장률을 살펴보면, 대만이 24.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해당 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반면 중국은 0.6%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나) 도시 주요 지표 비교

[도시 주요 거시 지표]

구분	인구 수			경제성장률			GDP	1인당 GDP	가처분 소득	GDP/가처분 소득
	2010년	2015년		2011년	2015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만 명	만 명	CAGR	%	%	CAGR	백만 달러	달러	달러	%
북경	1,962	2,170	2.0%	9.8%	7.7%	7.7%	320,235	14,881	6,587	44.3%
상해	2,303	2,415	1.0%	6.4%	5.9%	5.3%	353,816	14,584	7,156.5	49.1%
충칭	2,885	3,010	0.9%	20.9%	10.2%	12.3%	214,121	7,159	3,772	52.7%
홍콩	707	730	0.6%	3.6%	3.2%	2.0%	291,230	40,281	33,671	83.6%
타이베이	262	270	0.6%	2.8%	-	0.8%	52,786	19,551	-	-
자카르타	961	1,029	1.4%	6.9%	-	7.3%	134,254	13,973	-	-
호치민	734	822	2.3%	0.0%	9.9%	9.7%	40,698	5,100	-	-
싱가포르	508	554	1.7%	2.2%	4.3%	2.0%	306,340	56,004	-	-
방콕	821	841	0.5%	-0.5%	-	3.9%	-	-	-	-
뉴욕	819	855	0.9%	1.0%	-	2.0%	1,558,518	183,355	61,440	33.5%
LA	380	397	0.9%	0.3%	-	1.3%	866,745	218,324	49,400	22.6%
동경	1,316	1,349	0.5%	0.0%	-0.9%	-0.8%	920,802	69,285	-	-

□ 인구 수

- 조사 도시 중 2015년 기준 충칭, 상해, 북경의 중국의 세 도시가 각각 3,010만 명, 2,415만 명, 2,170만 명 순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이어서 일본의 동경이 1,349만 명으로 중국의 세 도시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2010년~2015년 6개년 간 가장 높은 연평균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 도시는 호치민으로 2.3%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북경이 2.0%로 근소하게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인구 성장률을 기록함.

□ 경제성장률

- 조사 도시 중 충칭이 2015년 기준 1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조사됨. 반면 동경은 동년 기준 0.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2010년~2015년 6개년 간 가장 높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도시 역시 충칭으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인 12.3%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낮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도시 또한 일본으로 0.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여 도시 경제가 침체기에 빠진 것으로 조사됨.

□ GDP

- 조사 도시 중 뉴욕이 2014년 기준 1조 5,585억 1,800만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의 GDP를 기록함. 또한 동경이 동년 기준 9,208억 200만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뉴욕에 이어서 조사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GDP를 기록하였음. LA는 8,667억 4,500만 달러로 세 번째로 높은 GDP를 기록하여 미국의 두 도시와 일본의 동경이 상위권을 형성하였음.
- 반면 호치민과 타이베이는 동년 기준 각각 406억 9,800만 달러, 527억 8,600만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GDP가 가장 낮은 도시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음.

□ 1인당 GDP(GDP per capita)

- 조사 도시 중 LA가 2014년 기준 218,324달러의 1인당 GDP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의 1인당 GDP를 기록함. 또한 뉴욕이 동년 기준 183,355달러의 1인당 GDP를 기록하며 LA에 이어서 조사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GDP를 기록하였음. 일본의 동경은 69,285달러로 세 번째로 높은 GDP를 기록함.
- 반면 호치민과 충칭은 동년 기준 각각 5,100달러, 7,159달러를 기록하여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도시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음.

□ 가처분 소득

- 조사 도시 중 뉴욕이 61,440달러의 가처분소득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의 가처분소득을 기록한 도시로 조사됨. 이어서 LA가 49,400달러로 뉴욕의 뒤를 이었음.
- 반면 충칭과 상해는 동년기준 각각 3,772달러와 7,157달러로 조사 도시 중 가처분 소득이 가장 낮은 두 도시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음.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 도시 중 홍콩이 2014년 기준 83.6%의 수치를 기록하며 GDP 대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었음. 이어서 충칭이 52.7%의 수치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이 높은 도시로 조사됨.
- 반면 LA와 뉴욕은 각각 22.6%, 33.5%의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을 기록하며 조사 도시 중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두 도시로 이름을 올림.

2. 중국

[중국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134,091	134,735	135,404	136,072	136,782	137,462
	전년 대비 증감	%		0.5%	0.5%	0.5%	0.5%	0.5%
GDP	해당 년도	10억 USD	6,040	7,492	8,462	9,491	10,351	10,866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4,504	5,561	6,249	6,975	7,568	7,905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10.6%	9.5%	7.8%	7.7%	7.3%	6.9%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3,760	4,236	4,700	-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60.2%	60.7%	62.1%	0.0%
식비지출액(연간)	해당 년도	USD	-	-	536	587	639	-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해당 년도	%			14.3%	13.9%	13.6%	
물가상승률	해당 년도	%	-	5.4%	2.6%	2.6%	2.0%	-
외국인 직접 투자액(연간)	해당 년도	억 USD			1,117	1,176	1,196	
	전년 대비 증감	%				5.3%	1.7%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	1,312,511	2,033,665	3,139,867	4,772,800	4,330,411
	전년 대비 증감	%			54.9%	54.4%	52.0%	-9.3%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4,076,400	4,185,400	4,069,900	3,969,000	4,181,800	-
	전년 대비 증감	%		2.7%	-2.8%	-2.5%	5.4%	

□ 인구 수

- 중국의 인구는 2015년 기준 13억 7,462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간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0.5%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 저성장기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GDP

-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2015년 기준 10조 8,66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것으로 조사됨. 2010년의 국내 총생산은 6조 400억 달러였으며, 2010년~2015년 6개년 간 중국의 국내 총 생산은 2010년 대비 2015년에 약 1.8배 증가함.

○ 1인당 GDP(GDP per capita)

- 인구 수의 증가가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국내 총 생산 규모는 매년 상승함에 따라 중국의 1인당 GDP는 완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음. 중국 국민의 2010년도 1인당 GDP는 4,504달러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7,905달러로 크게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예년대비 전반적인 생활수준 또한 상승하였음.

□ 경제성장률

-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010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인 11%에 육박할 정도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음. 2015년에는 약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경제성장률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가처분 소득

- 2012년~2014년 3개년 간 1,000달러 이상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2년 기준 3,760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2013년에는 4,236달러, 2014년에는 4,700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이러한 가처분소득을 해당년도 별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2년 기준 60.2%를 기록함. 이어서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60.7%와 62.1%의 비율을 기록하며 60%초반대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

□ 식비지출액(연간)

- 중국의 1인당 식비지출액은 2012년 기준 536달러, 2013년 587달러, 2014년 639달러를 기록하였음. 중국의 대도시들인 북경, 상해 및 충칭 중산층의 지출액 중 식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함께 식비 지출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 중국인은 타 국가에 비해 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은 13.6%로, 조사된 타 국가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의 평균 비율인 1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물가상승률

-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11년 대비 12년 물가상승률은 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음.
- 반면 식품 관련 소비자 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과는 달리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됨.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016년 3월 기준 식품 이외 품목의 물가지수는 1.1% 상승했지만, 식품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012년 1,117억 달러에서 2014년 1,196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지만, 점차 둔화하는 추세로 판단됨. 증감폭을 살펴보면, 2012~2013년 1개년 증가율이 5.3%를 기록했으나 2013~2014년 1개년 증가율은 1.7%로 최근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수 및 투자금액

- 중국 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기업의 추가 진출 가능성이 있으며, 대중국 외국인 투자 자본의 산업별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5년 1~9월 대중국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는 1만 8,98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으며, 실행 투자금액은 949억 달러(약 112조 원)로 9% 증가함.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12.3%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은 11.0% 증가함.

□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 한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2011년~2012년 1개년 간 증가율이 54.9%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음. 이후에도 5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였음.
- 2014년의 중국인 한국 방문자 수는 477만 2,800명을 기록함. 증가추세로 볼 때 2015년에 500만 명 돌파가 예상되었으나 한국에 창궐한 메르스로 인하여 오히려 중국 관광객이 소폭 감소하였음.

□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 2014년 기준 한국인 중국 방문자수는 약 420만 명을 기록함. 2012년~2013년 2개년 간 전년대비 감소를 거듭하다 2014년에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증가 폭은 전년대비 5.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2.1 북경

[북경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1,962	2,019	2,069	2,115	2,152	2,170
	전년 대비 증감	%		2.9%	2.5%	2.2%	1.7%	0.8%
GDP	해당 년도	백만 USD	211,884	243,986	268,419	297,265	320,235	344,822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10,799	12,085	12,973	14,055	14,881	15,890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	9.8%	7.4%	8.1%	5.7%	7.7%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4,361	4,935	5,470	6,048	6,587	7,929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40.4%	40.8%	42.2%	43.0%	44.3%	49.9%

□ 북경 인구 수

- 북경의 인구는 2015년 기준 2,170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간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2%를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2015년의 인구증감률은 0.8%를 기록하여, 최근 인구성장이 둔화추세에 접어들은 것으로 조사됨.

□ 북경 GDP

- 북경의 GDP는 2015년 기준 3,448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GDP의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DP(GDP per capita)

- 북경의 1인당 GDP의 경우 인구 수의 증가가 정체기에 접어들고 북경의 GDP가 매년 상승함에 따라 완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음. 2015년 기준 북경의 1인당 GDP는 15,890달러로 중국 전체 국민의 1인당 GDP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북경 경제성장률

- 북경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2011년 1개년 간 9.8%로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북경과 상해의 경제성장률 둔화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중국사회과학원 산업경제연구실 주임 후샤오핑(胡曉鵬)은 1인당 평균 GDP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두 도시의 경제 산업의 중심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북경 1인당 가처분 소득

- 북경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5년 기준 7,929달러로 조사됨. 2015년 북경 중산층의 소득은 연간 약 25.6만 위안(약 4,500만 원)으로 중국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북경 중산층의 총 지출액은 12.6만 위안(약 2,200만 원)으로 중국 내 도시별 중산층 총 지출액 중 가장 높았으며, 북경 중산층의 지출액 중 식비 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북경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0년 40.4%부터 2015년 49.9%의 비율을 기록하기까지 매년 완만하게 성장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2014~15년 1개년 간 5.6% 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2.2 상해

[상해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2,303	2,347	2,380	2,415	2,426	2,415
	전년 대비 증감	%		1.9%	1.4%	1.5%	0.5%	-0.5%
GDP	해당 년도	백만 USD	257,709	288,180	302,983	327,551	353,816	374,794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11,190	12,279	12,730	13,563	14,584	15,519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	6.4%	2.5%	5.5%	6.0%	5.9%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4,776	5,435	6,028	6,578	7,157	7,944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42.7%	44.3%	47.4%	48.5%	49.1%	51.2%

□ 상해 인구 수

- 상해의 인구는 2015년 기준 2,415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0.9%를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2015년의 인구증감률은 0.5% 감소해 인구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상해 GDP

- 상해의 GDP는 2015년 기준 3,747억 9,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또한 2014년 기준 중국 내 도시 GDP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함. 2010~2011년 1개년 간 GDP성장률이 11.8%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4~2015년 1개년 간의 성장률은 5.9%로 성장 폭이 감소하는 등 최근 상해의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상해 경제성장률

- 상해는 2011년~2015년 5개년 간 약 5~6%가량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예년과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중국사회과학원 산업경제연구실 주임 후샤오핑(胡曉鵬)은 1인당 평균 GDP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두 도시의 경제 산업의 중심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1인당 GDP(GDP per capita)

- 상해의 1인당 GDP의 경우 인구 수 증가가 정체기에 접어들고 상해의 전체 GDP가 매년 상승함에 따라 완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음. 2015년 기준 상해의 1인당 GDP는 15,519달러로 중국 전체 국민의 1인당 GDP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상해 1인당 가처분 소득

- 상해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5년 기준 7,944달러로 조사됨. 2015년 상해 중산층의 소득은 연간 21.9만 위안(약 3,800만 원)으로 중국 내에서 2번째로 높음.
- 상해 중산층의 총 지출액은 연간 11.4만 위안(약 2,000만 원)으로 중국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또한 상해 중산층의 지출액 중 식비 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상해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0년 42.7%에서 2014년 49.1%에 이르기까지 5개년 간 40%대를 유지하였음.
- 2015년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전년 대비 2.1% 포인트 가량 증가한 51.2%로, 50%대에 진입함.

2.3 충칭

[충칭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2,885	2,919	2,945	2,970	2,991	3,010
	전년 대비 증감	%		1.2%	0.9%	0.8%	0.7%	0.6%
GDP	해당 년도	백만 USD	118,985	150,298	171,290	191,912	214,121	235,996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4,124	5,149	5,816	6,462	7,159	7,840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	20.9%	11.4%	9.4%	9.6%	10.2%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2,630	3,037	3,445	3,782	3,772	4,086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63.8%	59.0%	59.2%	58.5%	52.7%	52.1%

□ 충칭 인구 수

- 충칭의 인구는 2015년 기준 3,010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0.9%를 기록했으나, 2010~11년 1개년 간 1.2%의 증가율을 보인 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감소하여 최근 인구저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됨.

□ 충칭 GDP

- 충칭의 GDP는 2015년 기준 2,359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중국 내 도시 GDP 순위에서 6위를 기록함. 특히 2008년 상해의 36% 수준이었던 충칭의 GDP는 2015년 상해의 63%의 수준까지 성장하여 중국 내에서도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조사됨.

○ 1인당 GDP(GDP per capita)

- 충칭의 1인당 GDP의 경우, 2015년 기준 7,840달러로 중국 전체의 1인당 GDP인 7,905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2010년 기준 약 4,000달러 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1인당 GDP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충칭 경제성장률

- 2015년 기준 충칭의 경제성장률은 10.2%로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특히 충칭은 2014년 이후 8분기 연속 중국 내 경제성장률 1위 도시로 확인되며, 특히 금융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최근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強)이 ‘충칭 경제가 휘귀처럼 뜨겁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충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전국 상위권임. 충칭 경제에서 금융업의 비중은 2010년 6.8%에서 2015년 9%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중국 내륙 지방의 은행 중 최초로 충칭은행이 2013년에 홍콩증시에 상장하였음.

□ 충청 가치분 소득

- 충청의 가치분 소득은 2010년 기준 2,630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기준 4,086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1인당 GDP의 빠른 증가와 높은 경제성장률이 가치분 소득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음.

○ 1인당 GDP대비 가치분 소득

- 충청의 1인당 GDP대비 가치분 소득 비율은 2010년 63.8%를 기록한 이후로 2011년 59.0%부터 2015년 52.1%에 이르기까지 5개년 간 꾸준히 50%대를 유지하였음.
- 1인당 GDP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1인당 GDP대비 가치분 소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홍콩

[홍콩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707	711	718	722	723	730
	전년 대비 증감	%		0.6%	1.0%	0.6%	0.1%	1.0%
GDP	해당 년도	10억 USD	229	249	263	276	291	310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32,390	35,021	36,630	38,227	40,249	42,466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6.8%	4.8%	1.7%	3.1%	2.6%	2.4%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29,877	31,889	33,671	35,387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81.6%	83.4%	83.7%	83.3%
식비지출액(연간)	해당 년도	USD	-	-	3,420	3,658	3,843	4,109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해당 년도	%			11.4%	11.5%	11.4%	11.6%
물가상승률	해당 년도	%	-	5.3%	4.1%	4.3%	4.4%	3.0%
외국인 직접 투자액(연간)	해당 년도	억 USD			725	770	-	
	전년 대비 증감	%				6.2%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	-	-	400,435	558,377	523,427
	전년 대비 증감	%					39.4%	-6.3%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891,024	1,020,996	1,078,458	1,083,543	1,251,047	-
	전년 대비 증감	%		14.6%	5.6%	0.5%	15.5%	

홍콩 GDP

- 홍콩의 국내 총생산은 2015년 기준 3,1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2010년의 국내 총생산은 2,290억 달러였으며, 2010년~2015년 6개년 간 중국의 국내 총 생산은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1인당 GDP(GDP per capita)

- 홍콩의 1인당 GDP의 경우, 2015년 기준 42,466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인구 수 증가가 정체기에 있으나 GDP는 매년 상승하여 1인당 GDP가 완만히 증가하고 있음. 2010년 대비 2015년에 약 10,000달러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홍콩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률 증가폭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6.8%였으나 2015년의 경제성장률은 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홍콩 가처분 소득

- 홍콩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2년 기준 29,877달러로 조사됨. 이후 2013년에는 31,889달러 2015년에는 35,387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2015년 4개년 간 5,000달러 이상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홍콩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은 2012년 81.6%, 2013년 83.4%, 2014년 83.7%, 2015년 83.3%를 기록하여 조사 국가들의 평균인 65.1% 대비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홍콩 식비지출액(연간)

- 홍콩의 1인당 식비지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4,109달러를 기록함. 2012년 1인당 식비지출액 3,420달러부터 3개년 연속 증가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4년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홍콩 한 가정 당 지출 내역 중 외식비, 식품 구입비가 각각 15.4% 및 7.3%로 조사됨. 또한 외식비와 식품 구입비가 전체 지출 내 22.7%를 차지하여 거주비용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또한 매년 가처분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 지출액과 식비지출액이 모두 상승하고 있음.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 반면 이러한 식비지출액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홍콩 내 1인당 가처분소득의 가파른 상승 때문에,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율은 2012년도 11.4%에서 2015년도 11.6%로 4개년 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조사 국가 평균 비율은 17.5%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홍콩은 타국가에 비해 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홍콩 물가상승률

- 2011년 대비 12년 물가상승률은 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세계 주요도시 물가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뉴욕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환산한 도시별 상대 물가지수에서 홍콩이 114를 기록하였음. 이는 조사된 도시 중 싱가포르(116)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홍콩 내 물가지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으로 물가 지수가 매우 높은 도시로 조사됨.

홍콩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 중국 내 외국인 투자액은 2012년 725억 달러에서 2013년 770억 달러로 해당 기간 6.2%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대홍콩 외국인 투자 환경

-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홍콩은 2015년 기준 189여 개 국 나라 중 투자 환경 순위 5위를 차지하였으며, 소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잘 된 나라로 선정되었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1년간 세계경제자유도가 1위로 세계에서 무역하기 가장 편한 도시로 선정되었음.

홍콩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 홍콩인은 중국인과 대만인 다음으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함. 특히 2014년 1개년 간 한국을 방문한 홍콩 관광객의 수는 한류의 인기와 함께 전년대비 약 40% 성장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5년 한국에서 창궐한 메르스의 여파로 당해 관광객이 전년대비 6.3%가량 소폭 감소하였음.

홍콩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 2014년 기준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는 약 125만 명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년대비 15.5% 증가된 수치로 2011년~2013년 3개년 간 증가율이 둔화된 후 급격히 증가한 수치임.

4. 대만

[대만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2,316	2,322	2,332	2,337	2,343	2,349
	전년 대비 증감	%		0.3%	0.4%	0.2%	0.3%	0.3%
GDP	해당 년도	10억 USD	446	486	496	512	530	524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19,257	20,930	21,269	21,908	22,621	22,307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10.6%	3.8%	2.1%	2.2%	3.9%	0.8%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13,918	14,182	14,400	13,909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65.4%	64.7%	63.7%	62.4%
식비지출액(연간)	해당 년도	USD	1,546	1,591	1,640	1,610	1,659	-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해당 년도	%			11.8%	11.4%	11.5%	0.0%
물가상승률	해당 년도	%	-	1.3%	2.4%	3.3%	2.3%	3.2%
외국인 직접 투자액(연간)	해당 년도	억 USD			55	49	58	
	전년 대비 증감	%				-10.9%	18.4%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	428,208	548,223	544,662	643,683	518,190
	전년 대비 증감	%			28.0%	-0.6%	18.2%	-19.5%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216,901	242,902	259,089	351,301	527,684	-
	전년 대비 증감	%		12.0%	6.7%	35.6%	50.2%	

□ 인구 수

- 대만의 인구는 2015년 기준 2,349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0.3%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저성장기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GDP

- 대만의 국내 총생산은 매년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0년에는 4,46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5년 기준 5,2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1인당 GDP(GDP per capita)

- 대만의 1인당 GDP의 경우, 2015년 기준 22,307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IMF가 조사한 국가별 GDP순위에서 전 세계 국가 중 33위 해당하는 수치임. 그러나 2015년에 대만 GDP가 감소함에 따라 1인당 GDP도 2014년 대비 역성장 하였음.

□ 경제성장률

- 2010년 기준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10.6%의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3%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는 데 그침. 2015년에는 특히 0.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성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됨.

□ 가처분 소득

- 대만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2년 기준 13,918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13,909달러를 기록하여 4개년 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대만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2년 65.4%, 2013년 64.7%, 2014년 63.7%, 2015년 62.4%로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대만 통계청의 2014년 조사에 의하면, 대만인들은 소득의 80%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식비지출액(연간)

- 대만의 1인당 식비지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1,659달러를 기록함. 2010년 1인당 식비지출액이 1,546달러를 기록하였고, 이후 2012년~2013년 기간을 제외하고 4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식비지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11.5%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조사 대상 국가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의 평균 비율인 17.5%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함.
- 그러나 식품 관련 평균 지출액이 가계 지출 항목 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대만 대표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고마지(GOMAJI)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외식 소비자는 수입의 약 30%를 외식에 지출하며 40%에 달하는 소비자가 매 주 11끼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은 2013~14년 동안 1%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2%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 2015년의 식품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였음. 특히 채소와 과일 가격이 각각 12.17%, 5.77% 상승하며 전반적인 물가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침.

□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 대만 내 외국인 투자액은 2012년 5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 49억 달러로 약 10%가량 크게 감소하였음. 그러나 2014년에 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4%성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액의 증감폭이 큰 것으로 조사됨.

- 또한 2015년의 투자유치규모는 과거 대비 소폭 축소되었음. 특히 10월 기준 외국인의 투자유치금액은 총 36.9억 US 달러(약 4.2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함. 투자 금액에서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건수는 증가세를 보여 건당 투자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됨.

□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 대만은 한류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다음으로 대만인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14년의 대만인 한국 방문객 수는 643,683명으로 전년대비 18.2%가량 증가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여파로 2015년 방문객 수가 518,190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약 19.5%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 대만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2014년 기준 52만 7,684명을 기록함. 이는 전년대비 50.2%가 증가한 숫자로 방문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4.1 타이베이

[타이베이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262	265	267	269	270	270
	전년 대비 증감	%	-	1.1%	0.8%	0.7%	0.4%	0.0%
GDP	해당 년도	백만 USD	45,488	47,337	47,963	50,517	52,786	56,547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17,362	17,863	17,964	18,780	19,551	20,943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	2.8%	-1.1%	0.0%	0.0%	0.0%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	-	-	-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0.0%	0.0%	0.0%	0.0%

타이베이 인구 수

- 타이베이의 인구는 2015년 기준 270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간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0.6%를 기록하여, 인구저성장기에 진입해있는 것으로 조사됨.

타이베이 GDP

- 타이베이의 GDP는 2015년 기준 565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만 전체 GDP 대비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인당 GDP(GDP per capita)

- 타이베이의 1인당 GDP는 2015년 기준 20,943달러임. 이는 대만 전체 1인당 GDP와 비슷한 수준이며 2010년의 17,362달러 대비 약 3천 달러 가량 증가한 수치임.

타이베이 경제성장률

- 2011년 기준 타이베이의 경제성장률은 3.8%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1.1%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함.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23,850	24,200	24,540	24,880	25,220	25,546
	전년 대비 증감	%		1.5%	1.4%	1.4%	1.4%	1.3%
GDP	해당 년도	10억 USD	755	893	918	913	890	862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3,166	3,690	3,741	3,670	3,529	3,374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6.2%	6.2%	6.0%	5.6%	5.0%	4.8%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2,189	2,165	2,099	2,004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58.5%	59.0%	59.5%	59.4%
식비지출액(연간)	해당 년도	USD	-	-	651	641	618	586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해당 년도	%			29.8%	29.6%	29.4%	29.2%
물가상승률	해당 년도	%	-	7.0%	3.8%	4.3%	8.4%	3.4%
외국인 직접 투자액(연간)	해당 년도	억 USD			246	286	285	
	전년 대비 증감	%				16.3%	-0.3%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95,239	124,474	149,247	189,189	208,329	193,590
	전년 대비 증감	%		30.7%	19.9%	26.8%	10.1%	-7.1%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281,785	302,184	303,856	324,560	328,122	-
	전년 대비 증감	%		7.2%	0.6%	6.8%	1.1%	

□ 인구 수

-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015년 기준 2억 5,546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1.3%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저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됨.

□ GDP

- 인도네시아의 국내 총생산은 2015년 기준 8,26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2010년에는 7,550억 달러였으며, 이후 12년에 9,180억 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1인당 GDP(GDP per capita)

-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의 경우, 2015년 기준 3,374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GDP와 마찬가지로 12년에 3,741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인당 GDP는 2010년부터 3,000달러(약 350만 원)를 넘어섰으나, 이는 여전히 세계 100위권 수준임. 그러나 물가 수준이 낮아 2014년 구매력(PPP) 기준 GDP는 세계 8위이며, 이는 13위인 한국보다 높은 순위임.

□ 가처분 소득

- 인도네시아의 가처분 소득은 2015년 기준 2,004달러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에 2,189달러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비록 1인당 가처분 소득이 2012년 이후부터 감소했으나, 인도네시아 내 중산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연간 9,000 달러(약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인구의 비중이 2004년 3%에서 2014년 25%로 증가했으며, 4,5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67%로 증가함.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2년 58.5%, 2013년 59%, 2014년 59.5%, 2015년 59.4%로 등락을 거듭하며 50%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음.

□ 식비지출액(연간)

- 인도네시아 1인당 가처분 소득의 감소세와 함께 1인당 소비 지출액 및 식비 지출액도 2012~2015년 3년 동안 매년 감소함. 그러나 이 기간에 1인당 소비 지출액에서 식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로 동일하게 유지됨.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 연도별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의 비중은 2015년 기준 29.2%인 것으로 조사됨. 타 조사 국가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의 평균 비율인 17.5%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인은 타 국가에 비해 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물가상승률

- 소비자 물가는 2011년부터 3~4%대로 안정된 상승률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에너지 가격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8% 포인트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임. 2014년에도 전년대비 8.36% 포인트 상승했으며, 2015년 6월에는 전월대비 7.26% 포인트 상승함. 2014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품목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교통·통신·기타서비스와 식료품이 타 품목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에 따르면 2015년 대 인도네시아 FDI 금액은 29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함. 투자 건수도 2014년 약 8,900건에서 2015년 약 18,000건으로 2배가량 증가함.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년에 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관광객 수는 약 19만 명임.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관광객 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5년 기준 전년대비 7.1% 하락함. 이는 메르스 여파로 11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 한국인 인도네시아 방문자수는 2014년 기준 32만 8,122명을 기록함. 한국인 인도네시아 방문자수는 2010년~2014년 5개년 간 연평균 약 4%의 성장세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5.1 자카르타

[자카르타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961	975	989	1,002	1,016	1,029
	전년 대비 증감	%		1.5%	1.4%	1.4%	1.4%	1.3%
GDP	해당 년도	백만 USD	81,950	93,309	104,377	117,914	134,254	-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8,400	9,500	10,500	11,572	13,973	-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	6.9%	8.1%	8.7%	5.5%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	-	-	-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0.0%	0.0%	0.0%	0.0%

자카르타 인구 수

- 2015년 자카르타의 인구 수는 1,029만 명임. 2013년도에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0~2015년 6개년 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자카르타 GDP

- 인도네시아 최대 경제 도시인 자카르타의 2014년 GDP는 1,324억 달러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GDP의 약 17%임. 2010년~2015년 6개년 간 인도네시아의 국내 총 생산은 2010년 대비 2015년에 약 1.6배 증가하여 고속 성장을 거듭 해온 것으로 조사됨.

1인당 GDP(GDP per capita)

- 한편, 자카르타의 1인당 GDP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13,973 US 달러를 기록했음. 또한 2013년 기준 1인당 GDP는 인도네시아 국가 전체 1인당 GDP의 약 4배 수준으로 자카르타의 생활수준이 타 지역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자카르타 경제성장률

- 자카르타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5.5%를 기록함. 또한 2011년~2013년 3개년 간 약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최근 4개년 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6. 베트남

[베트남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8,693	8,784	8,878	8,971	9,073	9,170
	전년 대비 증감	%		1.0%	1.1%	1.0%	1.1%	1.1%
GDP	해당 년도	10억 USD	116	136	156	171	186	194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1,334	1,548	1,757	1,906	2,050	2,116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6.4%	6.2%	5.2%	5.4%	6.0%	6.7%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960	1,080	1,240	1,420	1,520	1,690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71.9%	69.8%	70.6%	74.5%	74.1%	79.9%
식비지출액(연간)	해당 년도	USD	-	217	246	268	284	299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해당 년도	%	0.0%	20.1%	19.8%	18.9%	18.7%	17.7%
물가상승률	해당 년도	%	0	18.2%	9.2%	6.6%	4.1%	5.3%
외국인 직접 투자액(연간)	해당 년도	억 USD			164	224	219	
	전년 대비 증감	%				36.6%	-2.2%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90,213	105,531	106,507	117,070	141,504	162,765
	전년 대비 증감	%		17.0%	0.9%	9.9%	20.9%	15.0%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495,902	536,408	700,917	748,727	832,969	-
	전년 대비 증감	%		8.2%	30.7%	6.8%	11.3%	

□ 인구 수

- 베트남의 인구는 2015년 기준 9,170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1.1%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저성장기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GDP

-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은 2015년 기준 1,9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2010년의 국내 총생산은 1,160억 달러였으며, 2010년~2015년 6년 동안 베트남 국내 총 생산은 약 1.6배 증가하여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음.
- 또한 2015년 10월, 베트남을 포함한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TPP를 타결함. TPP로 인해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이 사라지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의 수출량 및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베트남은 TPP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월드뱅크(World Bank)에 따르면 2015-2035년 동안 TPP로 인해 베트남의 GDP가 약 8%, 실질수출은 약 17%, 주식 자본은 약 12%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함.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TPP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의 수출 총액은 TPP에 의해 2025년까지 890억 달러 만큼 더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함.

○ 1인당 GDP(GDP per capita)

- 베트남의 1인당 GDP의 경우, 2015년 기준 2,116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인구 수가 정체기에 있고 국가 전체 GDP가 성장함에 따라 베트남 1인당 GDP도 상승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 2015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함. 또한 2010년~2014년 5개년 간 약 5~6%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에 따라 베트남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처분 소득

- 베트남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5년 기준 1,690달러로 조사됨. 2010년에 960달러 대비 약 700달러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이후에도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약 34% 성장한 2,000달러(약 240만 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베트남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0~2015년 6개년 간 등락을 반복하였음. 2015년 전년대비 5.8% 포인트 상승하여 약 80%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식비지출액(연간)

-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비즈니스 모니터링 인터내셔널(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 BMI)에 따르면, 베트남의 1인당 연간 식품 소비 지출액은 2010~2016년 동안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되어 2016년에는 약 316달러(약 36만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 반면 이러한 식비지출액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1인당 가처분소득의 가파른 상승 때문에, 2010~2015년 6개년 간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

- 베트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8.2%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하여 안정적인 수준에 접어들었음. 또한 일부 공공서비스세(교육·의료)와 전기세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베트남 국가재정감독위원회(National Financial Supervision Commission, NFSC)는 201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5~4.5% 수준으로 전망함.

□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간 대 베트남 FDI 유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감소했던 FDI 금액은 2013년부터 다시 200억 달러 대에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12.5% 증가한 약 228억 달러를 기록함. 그 중 제조 및 가공 부분이 67.5%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는 전기·가스·온수·스팀·에어컨 공급 부분이 약 12%, 부동산 부분이 약 11%를 차지함.
- 향후에도 다수의 FTA와 TPP 등으로 인한 투자 기회가 많으므로 2016년 대 베트남 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 많은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됨.

□ 현지인 한국 방문자 수(연간)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 방문 베트남 관광객 수는 약 16만 명임. 20%에 육박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한국 방문 베트남 관광객은 2011~2013년 2개년 간 10%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며 주춤했었으나, 2014년에 다시 전년대비 20.9%로 크게 성장함.

□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 한국인 베트남 방문자는 2014년 기준 83만 2,969명을 기록함. 이는 2010년의 방문자수 49만 5,902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방문자수가 증가하고 있음.

6.1. 호치민

[호치민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734	749	766	782	798	822
	전년 대비 증감	%		2.0%	2.3%	2.1%	2.0%	3.0%
GDP	해당 년도	백만 USD	-	-	28,595	35,291	40,698	45,522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	-	3,733	4,513	5,100	5,538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	0.0%	0.0%	0.0%	9.6%	9.9%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	-	-	-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0.0%	0.0%	0.0%	0.0%

호치민 인구 수

- 호치민의 인구는 2015년 기준 822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간 연평균 인구 성장은 약 2%를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2015년의 인구증가율은 3%를 기록하여, 최근 인구성장이 다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호치민 GDP

- 호치민의 GDP는 2015년 기준 455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베트남 전체 GDP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비중임.

1인당 GDP(GDP per capita)

- 2014년 호치민의 1인당 GDP는 5,538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베트남의 1인당 GDP보다 약 2배 큰 수치임. 호치민 시정부는 호치민의 1인당 GDP를 2020년에 8,800달러까지, 2025년에 14,300달러까지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설정함.

호치민 경제성장률

- 호치민 시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4년 호치민시의 경제성장률은 9.6%, 2015년에는 9.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중임.

7. 싱가포르

[싱가포르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508	518	531	540	547	554
	전년 대비 증감	%		2.0%	2.5%	1.7%	1.3%	1.3%
GDP	해당 년도	10억 USD	236	275	290	300	306	293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46,457	53,089	54,614	55,556	55,941	52,888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15.2%	6.2%	3.7%	4.7%	3.3%	2.0%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28,060	28,994	29,345	27,163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51.4%	52.2%	52.5%	51.4%
식비지출액(연간)	해당 년도	USD	-	-	6,776	7,187	7,368	6,889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해당 년도	%			24.1%	24.8%	25.1%	25.4%
물가상승률	해당 년도	%	-	5.2%	4.6%	2.4%	1.0%	-0.6%
외국인 직접 투자액(연간)	해당 년도	억 USD			5,025	5,602	6,394	
	전년 대비 증감	%				11.5%	14.1%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112,855	124,565	154,073	174,567	201,105	160,153
	전년 대비 증감	%		10.4%	23.7%	13.3%	15.2%	-20.4%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360,615	414,879	445,157	471,768	536,975	-
	전년 대비 증감	%		15.0%	7.3%	6.0%	13.8%	

싱가포르 인구 수

- 싱가포르의 인구는 2015년 기준 554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1.7%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매년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임.

싱가포르 GDP

- 싱가포르의 국내 총생산은 2015년 기준 2,9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2010년의 2,360억 달러 대비 약 600억 달러 증가한 수치임.

1인당 GDP(GDP per capita)

- 싱가포르의 1인당 GDP의 경우, 2015년 기준 52,888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싱가포르 경제성장률

-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기준 2%를 기록함. 이는 특히 2010년, 2011년 각각 15.2%, 6.2%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로 싱가포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싱가포르 가처분 소득

-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지출액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 들어 전년 대비 하락함. 그러나 2016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7,810달러(약 3,200만 원), 1인당 소비 지출액은 2.5% 증가한 20,330달러(약 2,400만 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싱가포르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5년 기준 51.4%를 기록하였음. 이는 2012년과 같은 수치로 4개년 간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싱가포르 식비지출액(연간)

- 싱가포르의 식비지출액은 2015년 기준 6,889달러를 기록하였음. 2013년 월 평균 가계 지출액 중 식비 지출액이 약 21%를 차지하며 1,188 싱가포르 달러(약 100만 원)를 기록함. 이에 따라 식비는 약 30%를 차지하는 주거비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가계 지출액 품목인 것으로 조사됨.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 연도별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25.4%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조사된 국가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의 평균 비율인 17.5%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인은 타 국가에 비해 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 물가상승률

- 싱가포르의 물가상승률은 2011~2015년 5개년 간 연평균 약 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또한 월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977년 이후 최장 기간의 하락세를 보임. 이에 싱가포르 통화당국은 향후 환율정책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 싱가포르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대 싱가포르 FDI 금액은 2013년 대비 약 14% 증가하여 약 6,394억 달러(약 760조 원)를 기록함. 산업별 FDI 금액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이 매년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각각 약 15% 이상을 차지함. 싱가포르 정부의 강한 투자 유치 의지와 친 기업 정책으로 인해 대 싱가포르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싱가포르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 2015년 기준 한국을 방문한 싱가포르 관광객은 약 16만 명으로 2014년 대비 20% 감소함. 방문자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메르스의 여파로 2015년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싱가포르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 한국인 싱가포르 방문자수는 전년대비 2014년에 약 13.8%증가하였음. 이는 2011~2013년 3개년 간 증가율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매우 높은 증가수치임.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방문자수가 2014년 50만 명을 돌파한 53만 6,975명을 기록함.

8. 태국

[태국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6,640	6,658	6,679	6,701	6,722	6,796
	전년 대비 증감	%		0.3%	0.3%	0.3%	0.3%	1.1%
GDP	해당 년도	10억 USD	341	370	397	420	404	395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5,136	5,557	5,944	6,268	6,010	5,812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7.5%	0.8%	7.2%	2.7%	0.8%	2.8%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3,310	3,410	3,310	3,410	3,290	3,170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64.5%	61.4%	55.7%	54.4%	54.7%	54.5%
식비지출액(연간)	해당 년도	USD	685	742	776	800	828	-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해당 년도	%	20.7%	21.8%	23.4%	23.5%	25.2%	0.0%
물가상승률	해당 년도	%	0	3.8%	1.9%	1.7%	1.0%	0.3%
외국인 직접 투자액(연간)	해당 년도	억 USD			194	157	307	
	전년 대비 증감	%				-19.0%	94.9%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260,718	309,143	387,441	372,878	466,783	371,769
	전년 대비 증감	%		18.6%	25.3%	-3.8%	25.2%	-20.4%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805,445	1,006,283	1,163,619	1,295,342	1,117,020	-
	전년 대비 증감	%		24.9%	15.6%	11.3%	-13.8%	

인구 수

- 태국의 인구는 2015년 기준 6,796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0.5%를 기록하여, 인구저성장기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GDP

- 태국의 국내 총생산은 2015년 기준 3,9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3년 대비 하락한 수치임. 그러나 태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2016년 태국 경제는 회복될 전망이다.

1인당 GDP(GDP per capita)

- 태국의 1인당 GDP의 경우, 2013년 기준 6,268달러를 기록하여 6천 달러대에 진입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5년 5,812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경제성장률

- 월드뱅크(World Bank)에 따르면, 2014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0.8%를 기록함. 태국 정부는 인프라 및 민간 투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둔화된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려 노력중임. 실제로 태국 경제는 2015년 1분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며, 태국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함.

□ 가처분 소득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태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소비 지출액은 2014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6년 기준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소비 지출액은 각각 3,320달러, 3,340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태국은 지속적으로 소득 대비 높은 지출을 보임.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태국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1년 61.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2~2015년 4개년 간 50%대의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식비지출액

- 태국의 식비지출액은 2014년 기준 828달러를 기록하였음. 태국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의 감소세를 따라 1인당 식비 지출액도 2014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약 4% 성장하여 770달러(약 89만 원)를 기록하여 증가할 전망이다.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 태국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국(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s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NESDB)에 따르면, 2014년 태국의 가계당 가처분소득은 2008년 대비 약 50% 성장함.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태국의 중산층이 늘고 있음.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가계당 가처분 소득이 5,000~35,000달러에 해당하는 태국의 중산층이 2009년 3,060만 명에서 2014년 4,690만 명으로 약 50% 증가했으며, 2020년까지 4,95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2009년 기준 200만 명이었던 고소득층¹⁾은 2020년까지 73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태국 중산층의 규모와 구매력이 확대되면서 고가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함.

□ 물가상승률

- 2015년 태국의 물가상승률이 0.9% 감소하면서, 6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하락함.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2016년 물가상승률을 1~2%로 전망함.

1)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라 가계당 가처분 소득 5,000 US달러(약 580만 원) 미만은 저소득층, 5,000~35,000 US달러(약 580~4,000만 원)는 중산층, 35,000 US달러(약 4,000만 원)초과는 부유층으로 분류함.

□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 대 태국 FDI 금액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3년에 전년 대비 약 19% 하락함. 하지만 2014년 기준 FDI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여 약 307억 달러를 기록함. 한편, 2014년 기준 FDI 건수도 2013년 1,100여건에서 1,500여건으로 증가함. NESDB는 향후 대 태국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태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 방문 태국 관광객 수는 약 37만 명으로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한국 방문 태국 관광객은 2013년도에 감소했다가 2014년에 다시 전년 대비 25.2% 증가함. 그러나 메르스의 여파로 2015년에 전년 대비 무려 20.4% 하락한 수치를 보임.

□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 2010~2013년 4개년 간 한국인 태국 방문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기준 방문자수는 129만 5,342명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3.8% 감소하여 1,11만 7,020명이 태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8.1 방콕

[방콕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821	824	826	829	831	841
	전년 대비 증감	%		0.3%	0.3%	0.3%	0.3%	1.1%
GDP	해당 년도	백만 USD	135,955	140,371	154,973	163,428	-	-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14,301	17,091	18,869	19,899	-	-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	-0.5%	8.5%	3.7%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	-	-	-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0.0%	0.0%	0.0%	0.0%

□ 방콕 GDP

- 방콕의 GDP는 2013년 기준 1,634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태국 전체 GDP의 대비 40% 수준으로 방콕이 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1인당 GDP(GDP per capita)

- 방콕의 1인당 GDP의 경우 인구 수의 증가가 정체기에 접어든 반면 방콕의 GDP가 매년 상승함에 따라 완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음. 2013년 기준 방콕의 1인당 GDP는 19,899달러로 태국 전체 국민의 1인당 GDP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방콕 경제성장률

- 방콕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2013년 2개년 간 각각 8.5%, 3.7%를 기록하였음. NESDB에 따르면, 2013년의 방콕 경제성장률은 2012년 성장률(8.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하지만 방콕의 성장률은 태국 전체 GDP 성장률보다 약 1.4배 높은 수준임.

9. 미국

[미국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30,942	31,177	31,414	31,654	31,907	32,157
	전년 대비 증감	%		0.8%	0.8%	0.8%	0.8%	0.8%
GDP	해당 년도	10억 USD	14,964	15,517	16,155	16,663	17,348	17,947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48,361	49,771	51,426	52,641	54,371	55,811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2.5%	1.6%	2.2%	1.5%	2.4%	2.4%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36,299	37,164	36,374	37,077	38,046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72.9%	72.3%	69.1%	68.2%	68.2%
식비지출액(연간)	해당 년도	USD	4,004	4,186	4,336	4,446	4,576	-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해당 년도	%		11.5%	11.7%	12.2%	12.3%	0.0%
물가상승률	해당 년도	%	-	1.6%	2.2%	1.5%	2.4%	2.5%
외국인 직접 투자액(연간)	해당 년도	억 USD			1,696	2,761	2,900	
	전년 대비 증감	%				62.8%	5.0%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	661,503	697,866	722,315	770,305	710,033
	전년 대비 증감	%			5.5%	3.5%	6.6%	-7.8%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1,107,518	1,145,216	1,251,432	1,359,924	1,449,538	-
	전년 대비 증감	%		3.4%	9.3%	8.7%	6.6%	

인구 수

- 미국의 인구는 2015년 기준 3억 2,157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0.8%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저성장기에 진입해있는 것으로 판단됨.

GDP

-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2015년 기준 17조 9,47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2010년에는 14조 9,64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10월 미국은 5년간의 협상 끝에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타결함.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TPP의 경제 효과가 기대치에 비해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함. ITC에 따르면, TPP를 통해 미국의 GDP는 2023년 까지 0.15%, 가계실질소득은 0.23%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0.07% 증가할 예정임.

○ 1인당 GDP(GDP per capita)

- 미국의 1인당 GDP의 경우, 2015년 기준 55,811달러를 기록하였음. 2010년~2015년 까지 6개년 간 연평균 1인당 GDP성장률은 약 3%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률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도에 1.6%로 하락했었으나, 이후 2012년부터 회복하여 2015년까지 2%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따르면, 향후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2016년에 약 3.0% 성장할 전망이다.

□ 1인당 가처분 소득

- 미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성장세를 회복함. 미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08년 금융위기에 하락하는 시점이 있었으나,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전반적으로 완곡한 성장세를 이어옴. 미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38,046달러에서 2024년에는 57,790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미국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2년 72.3%를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2015년 3개년 간 60%후반 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식비지출액(연간)

- 가처분 소득과 함께 미국의 1인당 식비 지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1995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외식비는 총 식비지출액에서 약 45%를 차지하며 1,169달러(약 133만 원)를 기록함. 이후 1인당 외식비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는 2,293달러(약 260만 원)를 기록했고 총 식비지출액에서 약 50%를 차지함.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2014년 4개년 간 1%내의 상승률을 보이며 10%초반 대에 정착되어 있음. 반면 조사된 국가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의 평균 비율인 17.5%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인은 타 국가에 비해 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물가상승률

-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011년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2015년에는 0.1%의 상승률을 기록함. 이와 같은 낮은 물가 수준으로 인하여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4년 대 미국 FDI 금액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2,900억 달러(약 330조 원)임. 대 미국 FDI 금액 중 영국이 15%를 차지하며, 미국의 제 1 투자국이 됨. 그 뒤로는 일본(12.9%), 네덜란드 (10.5%), 캐나다 (9.0%), 룩셈부르크(8.4%) 순임. 미국은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므로, 향후 투자환경도 긍정적으로 전망됨. 또한, 미국 투자 및 진출에 따르는 제도적 측면의 위험 요소도 매우 낮은 편임.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 수는 약 71만 명임. 2011년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한국 방문 미국인 관광객 수는 2015년도에 전년도 대비 7.8% 하락한 수치를 보임. 이는 2015년에 유행한 메르스로 인해서 11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 한국인 미국 방문자수는 2014년 기준 144만 9,538명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년대비 8.7%상승 한 수치임. 또한 방문자수는 2010년~2013년까지 4개년 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9.1 뉴욕

[뉴욕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819	829	837	844	850	855
	전년 대비 증감	%		1.2%	1.0%	0.8%	0.7%	0.6%
GDP	해당 년도	백만 USD	1,334,008	1,368,438	1,446,659	1,490,952	1,558,518	-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162,883	165,071	172,839	176,653	183,355	-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	1.0%	3.5%	1.6%	2.1%	0.0%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54,459	57,010	59,064	59,023	61,440	-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33.4%	34.5%	34.2%	33.4%	33.5%	0.0%

□ 뉴욕 인구 수

- 뉴욕의 인구는 2015년 기준 855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0.9%를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2015년의 인구증감률은 0.6%를 기록하여 증가율이 감소 추세에 있음.

□ 뉴욕 GDP

- 뉴욕의 GDP는 2015년 기준 1조 3,340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2014년 뉴욕 메트로 지역²⁾의 GDP는 미국 전역의 381개 메트로 지역 GDP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1.6조 달러를 기록함.

○ 1인당 GDP(GDP per capita)

- 뉴욕의 1인당 GDP의 경우, 2015년 기준 183,355달러로 미국 전체의 1인당 GDP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6개년 연평균 1인당 GDP성장률은 약 3.9%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뉴욕 경제성장률

- 뉴욕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기준 2.1%를 기록함. 2011년 1.0%를 기록하여 2010년~2015년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로 2012년 3.5%, 2013년 1.6%로 점차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

2) 뉴욕 메트로 지역은 뉴욕(New York), 뉴어크(Newark), 저지 시티(Jersey City)임 .

□ 뉴욕 1인당 가처분 소득

- 뉴욕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4년 기준 61,440달러로 조사됨. 전년 대비 2013년에 0.1%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0~2014년 5년 동안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4%로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음.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뉴욕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0년 34%에서 2014년 33.5%로 5개년 간 1% 안팎의 등락을 거듭하였음.

9.2 LA

[LA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380	383	386	390	394	397
	전년 대비 증감	%		0.8%	0.8%	1.0%	1.0%	0.8%
GDP	해당 년도	백만 USD	764,958	779,236	806,415	833,801	866,745	-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199,728	201,875	206,773	211,625	218,324	-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	0.3%	1.3%	1.9%	1.6%	0.0%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42,540	44,627	47,713	47,580	49,400	-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21.3%	22.1%	23.1%	22.5%	22.6%	0.0%

LA 인구 수

- LA의 인구는 2015년 기준 397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0.9%를 기록하여 인구 저성장기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

LA GDP

- LA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2014년 GDP는 2.2조 US 달러(약 2,500조 원)를 기록하며, 미국의 50개 주 GDP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함. 또한, 이는 미국 전체 GDP의 약 12%에 해당함.
- 한편, 2014년 LA의 GDP는 8,667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 메트로 지역은 미국 전역의 381개 메트로 지역 GDP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함.

1인당 GDP(GDP per capita)

- LA의 1인당 GDP의 경우, 2015년 기준 218,324달러를 기록함.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6개년 연평균 1인당 GDP성장률은 약 2%로 완만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2010~2011년 1개년 간 성장률은 0.7%를 기록하였으나 2014~2015년 1개년 간 성장률은 3.2%로 증가하여 성장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LA 경제성장률

- LA의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4년 기준 1.6%를 기록함. 2011년 0.3%를 기록하여 2010년~2015년 6개년 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로 2012년 1.3%, 2013년 1.9%로 점차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

□ LA 1인당 가처분 소득

- LA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4년 기준 49,400달러로 조사됨.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간 연평균 3.8%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며 당분간 이 같은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LA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0년 21.4%에서 2014년 23.3%에 이르기까지 5개년 간 연평균 1% 포인트 안팎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0. 일본

[일본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12,760	12,780	12,752	12,730	12,702	12,682
	전년 대비 증감	%		0.2%	-0.2%	-0.2%	-0.2%	-0.2%
GDP	해당 년도	10억 USD	4,779	4,670	4,707	4,745	4,822	-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37,456	36,545	36,913	37,272	37,962	-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4.7%	-0.5%	1.7%	1.4%	0.0%	0.5%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30,050	24,719	22,940	22,659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81.4%	66.3%	60.4%	0.0%
식비지출액(연간)	해당 년도	USD	-	-	3,577	2,996	2,801	2,766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해당 년도	%			11.9%	12.1%	12.2%	12.2%
물가상승률	해당 년도	%	-	-0.3%	0.0%	0.4%	2.7%	0.8%
외국인 직접 투자액(연간)	해당 년도	억 USD			1,761	2,358	907	
	전년 대비 증감	%				33.9%	-61.5%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	3,289,051	3,518,792	2,747,750	2,280,434	1,837,782
	전년 대비 증감	%			7.0%	-21.9%	-17.0%	-19.4%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해당 년도	명	2,439,816	1,658,073	2,042,775	2,456,165	2,755,313	-
	전년 대비 증감	%		-32.0%	23.2%	20.2%	12.2%	

□ 인구 수

- 일본의 인구는 2015년 기준 1억 2,682만 명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GDP

-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2010년 기준 4조 7,779억 달러, 2014년 기준 4조 8,220억 달러로 2010년~2014년 5개년 간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1년에는 4조 6,700억 달러로 전년대비 감소를 기록함.
- 이는 2011년 3월, 동경전력 관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동경을 중심으로 동(東)일본지역에 막대한 전력부족 현상이 일어나며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수출 활동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임. 또한 2011년 하반기, 태국에 대홍수가 발생하며 일본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 혼다를 중심으로 일본 주력 산업 관련 기업의 태국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아 생산에 차질을 입었음. 그 결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GDP가 크게 급감하였음.

○ 1인당 GDP(GDP per capita)

- 일본의 1인당 GDP의 경우, 2014년 기준 37,962달러를 기록하였음. 2010년에는 37,456달러를 기록하여 2010년~2014년 5개년 간 큰 변동 폭이 없었음.
- 반면 2011년에는 36,545달러로 전년대비 감소했음. 이는 2011년 동경전력 관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일본 전체 GDP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경제성장률

- 2015년 일본 명목 GDP 성장률은 2.9%, 실질 GDP 성장률은 0.5%로 확인됨. 최근 일본의 실질 GDP가 부진한 핵심 원인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일본 전체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편임.

□ 1인당 가처분 소득

- 일본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5년 기준 22,659달러를 기록하였음. 2012년에는 30,050달러를 정점으로 2012년~2015년 4개년 간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매년 감소한 결과임.

○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 일본의 1인당 GDP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14년 기준 60.4%를 기록함. 이는 2012년의 81.4%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수치로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결과임.

□ 식비지출액(연간)

- 일본의 식비 지출액은 2015년 기준 2,766달러로 조사됨. 이는 2012년 식비지출액인 3,577달러 대비 약 70%의 해당하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식비지출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에는 감소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액

- 일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비율은 2015년 기준 12.2%로 조사됨. 이는 조사된 국가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의 평균 비율인 17.5%보다 낮은 수치이며, 일본인은 타 국가에 비해 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일본 1인당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라 1인당 식비지출액도 감소하고 있음. 일본 총무성의 2015년 가계조사에 따르면 65~69세의 식료품비 지출은 월 73,000엔(약 83만 원)이지만, 70~74세가 되면 68,000엔(약 77만 원)으로 줄어듦. 이는 일본에서 경제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단카이세대³⁾가 식비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향후 1인당 식비지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

- 일본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5년에 전년대비 1.9% 포인트 감소함. 이는 일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된 결과가 반영된 수치로 분석됨.

□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 외국인 직접 투자액 2014년 기준 907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전년대비 약 60% 감소한 수치임.
- 일본은 장기 불황 및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따른 전력비의 부담, 엔고 현상, 비싼 노동력 등의 이유로 신규 투자처로 선호되지 않았음. 하지만 아베 정권 이후 투자유치 방해 요인 제거 등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대 일본 투자는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주요 외국 기업의 일본 철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8월 말에 영국 최대 대형마트 기업인 테스코(TESCO)가 일본에서 철수했고, 알리안츠(Allianz) 생명보험은 2012년 초부터 신규 계약 모집을 정지하며 3차 산업의 투자금액이 급감함. 동일본 대지진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에는 해외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거의 없음.
- 2012년 이후로 화학의약, 수송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의 투자금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3차 산업의 투자금은 증가하였음.

□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연간)

-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 2012년 약 352만 명으로 집계된 후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15년 약 184만 명으로 집계됨. 2012년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서 31.6%의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인 관광객의 비율은 2015년 13.9%를 기록함. 이처럼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수퍼엔고⁴⁾ 현상으로 인한 일본 경제 침체 등으로 판단됨.

3) 단카이세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를 뜻하는 말임. ‘단카이(だんかい, 團塊)’란 ‘덩어리’라는 뜻으로, 이 세대의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인구분포도를 그리면 덩어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음. 이들은 특히 1970~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내며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키운 견인차 역할을 한 세대임.

□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연간)

- 한국인 일본 방문자수는 2014년 기준 275만 5,313명임. 전년대비 2011년의 방문자수는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됨. 이후에는 증가세가 회복되어 2011년~2014년 4개년 간 연평균 18.5%의 상승률을 기록함.

10.1 동경

[동경 거시 지표]

지표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수	해당 년도	만 명	1,316	1,319	1,322	1,329	1,338	1,349
	전년 대비 증감	%		0.2%	0.2%	0.5%	0.7%	0.8%
GDP	해당 년도	백만 USD	-	921,590	912,903	921,970	920,802	919,620
- 1인당 GDP	해당 년도	USD	-	70,030	69,212	69,741	69,285	68,731
경제성장률	해당 년도	USD	-	0.0%	-0.9%	0.6%	-2.8%	-0.9%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USD	-	-	-	-	-	-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해당 년도	%	0.0%	0.0%	0.0%	0.0%	0.0%	0.0%

□ 동경 인구 수

- 동경의 인구는 2015년 기준 1,349만 명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0.5%를 기록했으나, 2015년의 인구증감률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소폭 인구수가 증가 추세로 판단됨.

□ 동경 GDP

- 동경의 GDP는 2015년 기준 9,196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전체 GDP의 대비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DP(GDP per capita)

- 동경의 1인당 GDP의 경우 2011년 기준 70,030달러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한편 2014년 기준 동경의 1인당 GDP는 68,731달러로 일본 전체 국민의 1인당 GDP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4) 수퍼엔고: US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적정수준에서 벗어나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칭함. 수퍼엔고 현상이 벌어지면 일본 기업들의 수출제품 단가가 급등하여 일본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됨.

□ 동경 경제성장률

- 동경의 경제 성장률은 2013년을 제외하고 2012년~2015년 4개년 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0.9%, 2014년 -2.8%, 2015년 -0.9%로 최근 동경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기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외식 공급자 지표

2.1 도시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 유로모니터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외식시장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어서 일본, 미국 순으로 많은 외식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음.

[도시 외식시장규모]⁵⁾

(단위 : 백만 US 달러)

항목	도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외식시장 규모	북경	13,194	13,905	14,897	15,917	17,176	19,581	8.2%
	상해	16,047	16,424	16,815	17,538	18,977	21,283	5.8%
	중칭	7,409	8,566	9,506	10,276	11,484	13,401	12.6%
	홍콩	10,970	11,296	11,842	12,433	12,838	13,256	3.9%
	타이베이	1,499	1,471	1,502	1,577	1,626	1,791	3.6%
	자카르타	2,445	2,536	2,989	3,708	4,718	-	17.9%
	호치민	-	-	2,556	3,394	4,058	4,990	25.0%
	싱가포르	7,286	7,526	7,695	7,943	8,162	8,391	2.9%
	방콕	7,773	7,362	7,786	8,079	-	-	1.3%
	뉴욕	40,321	40,870	42,916	43,947	45,662	-	3.2%
	LA	31,918	31,473	31,761	32,357	32,789	-	0.7%
	동경	33,900	30,667	30,676	37,787	40,833	-	4.8%

5) 국가 외식시장규모에 도시별 GDP 규모를 곱하여 도시 외식시장규모를 추정하였음. 실제 수치는 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1인당 평균 외식매출액]⁶⁾

(단위 : US 달러)

항목	도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1인당 매출액	북경	672	689	720	753	798	902	4.4%	
	상해	697	700	707	726	782	881	2.9%	
	충칭	257	293	323	346	384	445	10.6%	
	홍콩	1,552	1,589	1,649	1,722	1,776	1,816	3.4%	
	타이베이	572	555	562	586	602	663	1.3%	
	자카르타	-	-	-	-	-	-	-	-
	호치민	-	-	334	434	509	607	22.1%	
	싱가포르	1,434	1,453	1,449	1,471	1,492	1,515	1.0%	
	방콕	-	-	-	-	-	-	-	-
	뉴욕	4,923	4,930	5,127	5,207	5,372	-	2.2%	
	LA	8,400	8,217	8,228	8,297	8,322	-	-0.2%	
	동경	2,576	2,325	2,320	2,843	3,052	-	4.3%	

2.2 도시별 매출액 및 식당 수

가) 북경

- 북경의 외식시장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파인 다이닝’ 과 ‘캐주얼 다이닝’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북경의 식당 수의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업태 식당 수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북경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13,194	13,905	14,897	15,917	17,176	19,581
플서비스 레스토랑	74.6%	74.8%	74.8%	74.8%	75.3%	76.1%
패스트푸드	23.6%	23.3%	23.2%	23.0%	22.5%	21.8%
카페/바	1.8%	1.9%	2.0%	2.1%	2.2%	2.1%
식당수	213,883	214,112	221,583	231,125	240,873	260,541
플서비스 레스토랑	78.3%	78.7%	78.8%	79.0%	78.9%	79.8%
패스트푸드	21.3%	20.9%	20.8%	20.6%	20.7%	20.8%
카페/바	0.4%	0.4%	0.4%	0.4%	0.4%	0.4%

6) 도시별 외식시장규모를 도시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나) 상해

- 상해의 외식시장규모는 2010년 대비 2015년 약 32%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파인 다이닝’ 과 ‘캐주얼 다이닝’ 업태의 외식시장규모는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패스트푸드’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카페/바’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2014년까지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상해의 식당 수의 변화는 2010년 대비 2013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연간 약 20,000개의 식당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카페/바’ 업태를 제외한 모든 업태의 식당 수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 및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상해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16,047	16,424	16,815	17,538	18,977	21,283
	플서비스 레스토랑	74.6%	74.8%	74.8%	74.8%	75.3%	76.1%
	패스트푸드	23.6%	23.3%	23.2%	23.0%	22.5%	21.8%
	카페/바	1.8%	1.9%	2.0%	2.1%	2.2%	2.1%
식당수		260,140	252,894	250,116	254,673	266,132	283,187
	플서비스 레스토랑	78.3%	78.7%	78.8%	79.0%	78.9%	79.8%
	패스트푸드	21.3%	20.9%	20.8%	20.6%	20.7%	20.8%
	카페/바	0.4%	0.4%	0.4%	0.4%	0.4%	0.4%

다) 충칭

- 충칭의 총 외식시장규모 성장률은 5년간 약 80%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 ‘파인 다이닝’ 과 ‘캐주얼 다이닝’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패스트푸드’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또한 매년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카페/바’ 업태의 경우 2013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칭의 식당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약 178,000개를 넘음.
- ‘다이닝’ 업태의 식당 수 비율이 약 80%에 육박하며, 그 중 ‘캐주얼 다이닝’ 업태의 비율이 약 72%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카페/바’의 비율은 전체 대비 약 0.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됨.

[충청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7,409	8,566	9,506	10,276	11,484	13,401
	풀서비스 레스토랑	74.6%	74.8%	74.8%	74.8%	75.3%	76.1%
	패스트푸드	23.6%	23.3%	23.2%	23.0%	22.5%	21.8%
	카페/바	1.8%	1.9%	2.0%	2.1%	2.2%	2.1%
식당수		120,108	131,895	141,401	149,213	161,057	178,314
	풀서비스 레스토랑	78.3%	78.7%	78.8%	79.0%	78.9%	79.8%
	패스트푸드	21.3%	20.9%	20.8%	20.6%	20.7%	20.8%
	카페/바	0.4%	0.4%	0.4%	0.4%	0.4%	0.4%

라) 홍콩

- 홍콩의 외식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다이닝’업태의 외식시장 규모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패스트푸드’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카페/바’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 또한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홍콩의 식당 수는 매년 약 150개 정도씩 늘어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와 ‘카페/바’업태의 식당 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이닝’업태의 식당 수는 꾸준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홍콩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10,970	11,296	11,842	12,433	12,838	13,256
	풀서비스 레스토랑	72.1%	70.4%	69.7%	68.7%	68.0%	67.3%
	패스트푸드	19.8%	21.2%	21.8%	22.6%	23.3%	23.8%
	카페/바	8.1%	8.4%	8.6%	8.7%	8.7%	8.9%
식당수		14,591	14,710	14,856	14,949	14,990	15,068
	풀서비스 레스토랑	66.0%	65.4%	64.7%	64.3%	64.0%	63.6%
	패스트푸드	22.4%	22.6%	23.1%	23.1%	23.3%	23.7%
	카페/바	11.7%	12.1%	12.3%	12.6%	12.7%	12.7%

마) 타이베이

- 타이베이의 외식시장규모는 상승하고 있으나, ‘다이닝’ 업태와 ‘카페/바’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패스트푸드’ 업태의 외식시장규모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외식시장규모가 상승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 타이베이의 식당 수는 2010년 기준, 201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약 2,000개의 식당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업태별로 비슷한 증감율을 매년 보이며 식당 수의 증가 또는 감소의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타이베이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1,499	1,471	1,502	1,577	1,626	1,791
	플서비스 레스토랑	63.2%	62.4%	61.8%	60.7%	59.8%	59.4%
	패스트푸드	25.7%	26.3%	26.8%	28.2%	29.3%	29.7%
	카페/바	11.1%	11.3%	11.4%	11.0%	10.9%	10.9%
식당수		20,080	19,286	19,190	19,604	19,785	21,399
	플서비스 레스토랑	19.5%	19.5%	19.7%	19.9%	20.0%	20.2%
	패스트푸드	64.5%	64.4%	64.5%	64.5%	64.5%	64.5%
	카페/바	16.0%	16.0%	15.8%	15.7%	15.5%	15.3%

바) 자카르타

- 자카르타의 외식시장규모는 2010년 대비 2014년도에 약 두 배의 성장률을 보임.
- ‘다이닝’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카페/바’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낮은 증가율이지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자카르타의 식당 수의 변화는 4년 동안 약 1만 개의 식당이 늘어났으며, ‘패스트푸드’와 ‘카페/바’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자카르타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2,445	2,536	2,989	3,708	4,718	-
	풀서비스 레스토랑	89.4%	89.2%	89.0%	88.8%	88.8%	-
	패스트푸드	4.3%	4.5%	4.6%	4.8%	4.7%	-
	카페/바	6.3%	6.3%	6.4%	6.4%	6.5%	-
식당수		21,537	21,024	23,091	26,463	31,050	-
	풀서비스 레스토랑	92.2%	91.7%	91.2%	90.8%	90.6%	-
	패스트푸드	4.1%	4.4%	4.8%	5.1%	5.1%	-
	카페/바	3.7%	3.8%	4.0%	4.1%	4.3%	-

사) 호치민

- 호치민의 외식시장규모 성장은 2012년 대비 2015년도에 약 1.8배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
- ‘다이닝’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카페/바’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평균 0.7%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호치민의 식당 수는 4년 간 약 2만 개가 증가했으며, 특히 ‘다이닝’ 업태의 식당 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 ‘패스트푸드’와 ‘카페/바’ 업태의 식당 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호치민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	-	2,556	3,394	4,058	4,990
	풀서비스 레스토랑	-	-	75.6%	76.7%	77.4%	77.9%
	패스트푸드	-	-	4.6%	4.4%	4.4%	4.4%
	카페/바	-	-	19.8%	19.0%	18.1%	17.7%
식당수		-	-	48,918	57,474	62,637	68,800
	풀서비스 레스토랑	-	-	74.2%	75.4%	76.0%	76.4%
	패스트푸드	-	-	6.4%	6.0%	5.9%	5.8%
	카페/바	-	-	19.4%	18.6%	18.1%	17.8%

아)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외식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각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의 식당 수는 5년 간 약 1천개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업태의 식당 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와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음.

[싱가포르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7,286	7,526	7,695	7,943	8,162	8,391
	플서비스 레스토랑	40.3%	40.1%	40.5%	40.6%	41.0%	16.3%
	패스트푸드	21.4%	21.8%	22.1%	22.3%	21.8%	23.8%
	카페/바	38.3%	38.1%	37.4%	37.1%	37.2%	22.1%
식당수		26,555	26,722	26,755	27,032	27,322	27,638
	플서비스 레스토랑	31.3%	30.9%	31.0%	31.3%	31.7%	37.8%
	패스트푸드	28.7%	29.0%	29.4%	29.0%	28.2%	22.1%
	카페/바	40.1%	40.1%	39.6%	39.7%	40.1%	40.4%

자) 방콕

- 방콕의 외식시장규모는 조금씩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이 같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이닝’ 업태와 ‘카페/바’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방콕의 식당 수는 4년 간 약 800여개 늘어났으며, ‘패스트푸드’ 업태의 식당 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방콕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7,773	7,362	7,786	8,079	-	-
	풀서비스 레스토랑	37.0%	35.3%	34.7%	34.2%	-	-
	패스트푸드	15.8%	17.6%	18.7%	19.8%	-	-
	카페/바	47.2%	47.1%	46.6%	46.0%	-	-
식당수		50,805	48,858	50,931	51,647	-	-
	풀서비스 레스토랑	30.2%	29.6%	28.8%	27.8%	-	-
	패스트푸드	33.1%	33.6%	34.8%	36.5%	-	-
	카페/바	36.7%	36.8%	36.4%	35.7%	-	-

차) 뉴욕

- 뉴욕의 외식시장규모는 2011년과 2014년에 크게 상승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이닝’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패스트푸드’와 ‘카페/바’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뉴욕의 식당 수는 2011년 감소했다가, 2012년부터 다시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모든 업태의 식당 수 비율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뉴욕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40,321	40,870	42,916	43,947	45,662	-
	풀서비스 레스토랑	45.5%	45.1%	44.5%	44.1%	43.2%	-
	패스트푸드	44.8%	45.2%	45.7%	45.9%	46.5%	-
	카페/바	9.7%	9.8%	9.8%	10.0%	10.3%	-
식당수		55,662	55,271	56,978	57,859	58,959	-
	풀서비스 레스토랑	41.5%	41.4%	41.4%	41.5%	41.2%	-
	패스트푸드	45.7%	45.9%	45.8%	45.8%	45.9%	-
	카페/바	12.8%	12.7%	12.8%	12.8%	12.9%	-

카) LA

- LA의 외식시장규모는 2011년도에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이닝’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패스트푸드’와 ‘카페/바’ 업태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LA의 식당 수는 2011년도에 감소하였으나,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패스트푸드’ 업체의 식당 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LA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31,918	31,473	31,761	32,357	32,789	-
	플서비스 레스토랑	45.5%	45.1%	44.5%	44.1%	43.2%	-
	패스트푸드	44.8%	45.2%	45.7%	45.9%	46.5%	-
	카페/바	9.7%	9.8%	9.8%	10.0%	10.3%	-
식당수		31,918	31,473	31,761	32,357	32,789	-
	플서비스 레스토랑	41.5%	41.4%	41.4%	41.5%	41.2%	-
	패스트푸드	45.7%	45.9%	45.8%	45.8%	45.9%	-
	카페/바	12.8%	12.7%	12.8%	12.8%	12.9%	-

타) 동경

- 동경의 외식시장규모는 2011년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됨. ‘패스트푸드’ 업체의 외식시장규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경의 식당 수는 2010년 대비 201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3년도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 ‘다이닝’ 업체의 식당 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경 외식시장규모 및 식당 수 비율]

(단위 : US 달러, 개)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식시장 규모		33,900	30,667	30,676	37,787	40,833	-
	플서비스 레스토랑	52.4%	52.0%	51.5%	51.5%	51.9%	-
	패스트푸드	20.7%	21.7%	22.6%	23.5%	24.3%	-
	카페/바	26.9%	26.3%	25.9%	25.0%	23.8%	-
식당수		127,400	117,038	116,171	140,735	149,159	-
	플서비스 레스토랑	41.6%	41.7%	40.6%	40.3%	39.8%	-
	패스트푸드	10.8%	10.8%	11.7%	12.1%	12.6%	-
	카페/바	47.6%	47.5%	47.8%	47.5%	47.5%	-

3. 외식 소비자 지표

3.1 외식 경험 비율

- 동경을 제외한 11개 도시에서의 90%를 넘는 외식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음. 방콕의 외식 경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동경은 84.9%로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외식 경험 비율]⁷⁾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비율
소비자 설문	외식 경험 비율	북경	97.7%
		상해	98.6%
		충칭	99.5%
		홍콩	99.5%
		타이베이	99.1%
		자카르타	99.1%
		호치민	99.1%
		싱가포르	98.8%
		방콕	99.8%
		뉴욕	94.9%
		LA	96.6%
		동경	84.9%

3.2 평균 외식 빈도

- 홍콩을 제외한 모든 조사 도시에서 평균 외식 빈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타이베이의 평균 외식 빈도가 21.7회로 가장 많으며, 동경의 경우 7.7회로 가장 적은 외식 빈도를 보이고 있음.
- 모든 도시의 외식 빈도의 평균은 약 11.9회임. 홍콩, 타이베이, 싱가포르는 평균보다 높은 외식 빈도를 보이고 있음.
- 캐주얼 다이닝 업체에서의 평균 외식 빈도는 ‘타이베이(10.2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패스트푸드 업체 평균 외식 빈도는 ‘홍콩(6.9회)’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7) 한 달 내 외식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임. 한 달 내 외식경험이 없는 응답자(설문탈락자)와 한 달 내 외식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를 더한 총 응답자 중 외식경험자의 비율로 도출되었음. 따라서 실제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

[평균 외식 빈도]⁸⁾

(단위 : 회)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5 업태별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 푸드	카페/ 바
소비자 설문	평균 외식 빈도	북경	-	-	-	-	12.2	11.3	1.5	4.5	3.7	1.3
		상해	-	-	-	-	11.6	11.2	1.8	4.0	3.2	1.5
		충칭	-	-	-	-	-	10.8	2.3	3.6	3.2	1.3
		홍콩	-	19.9	-	-	17.2	18.8	1.8	7.7	6.9	1.7
		타이베이	-	-	-	-	-	21.7	1.4	10.2	3.9	1.7
		자카르타	-	-	16.4	-	-	10.3	2.7	2.6	2.7	1.6
		호지민	-	-	-	-	13.8	11.3	0.9	3.2	2.9	2.3
		싱가포르	23.6	-	-	-	-	13.5	1.5	5.5	2.8	1.9
		방콕	-	15.2	-	-	-	10.0	1.6	4.7	2.5	0.8
		뉴욕	-	-	-	-	13.0	8.1	1.5	2.6	2.5	1.2
		LA	-	-	-	-	12.9	8.2	1.1	2.9	2.8	1.1
		동경	-	-	-	-	8.9	7.7	0.3	3.0	2.2	0.9

(2015년 샘플: n=400, 전체)

3.3 총 지출액 대비 외식 지출 비율

- 홍콩에서의 외식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43.1%로 조사됨.
- 싱가포르와 동경의 외식 지출 비율은 각각 19.8%와 11.3%로 타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치로 조사됨.
- 전체 조사 도시들의 총 지출액 대비 외식 지출 비율은 24.6%로 나타남.

8) 한 달 평균 외식 횟수에 대한 응답 결과임.

[총 지출액 대비 외식 지출 비율]⁹⁾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비율
소비자 설문	총 지출액 대비 외식 지출 비율	북경	27.4%
		상해	28.2%
		충칭	26.6%
		홍콩	43.1%
		타이베이	23.1%
		자카르타	28.4%
		호치민	23.5%
		싱가포르	19.8%
		방콕	21.7%
		뉴욕	21.2%
		LA	21.3%
		동경	11.3%

(2015년 샘플: n=400, 전체)

3.4 1회당 외식 지출 금액

- 미국 권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외식당 방문 시 지출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호치민의 경우, 큰 폭으로 15년 기준 전년 대비 14US 달러가 감소한 수치를 보임.
- 1회당 외식 시 지출하는 금액은 ‘뉴욕(48.8US 달러)’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업태별로도 카페/바를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가장 높은 지출 금액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호치민은 8.1US 달러의 1회당 외식 지출 금액이 조사되었으며, 전체 조사 도시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됨.
- 조사 도시 전체의 1회당 외식 지출 금액의 평균은 21.7US 달러로 조사됨.

9) 한 달 평균 총 지출액 중 외식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응답 결과임.

[1회당 평균 외식 지출 금액]

(단위 : US 달러)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5	'15 업태별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소비자 설문	1회당 외식 지출 금액	북경	17.5	32.5	12.2	7.9	18.5
		상해	21.3	38.4	13.3	7.7	20.6
		충칭	19.0	34.1	11.6	8.8	19.3
		홍콩	21.1	40.5	16.0	9.7	19.8
		타이베이	12.7	32.0	9.6	5.6	13.5
		자카르타	14.2	15.1	12.4	8.1	16.3
		호치민	8.1	24.3	8.6	4.6	7.2
		싱가포르	26.7	43.2	17.2	8.0	20.3
		방콕	15.3	23.8	10.3	8.2	21.4
		뉴욕	48.8	58.7	30.8	23.9	36.4
		LA	35.1	49.1	24.9	12.9	25.9
		동경	21.0	51.6	18.4	6.9	13.7

(2015년 샘플: n=400, 전체)

3.5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¹⁰⁾¹¹⁾

□ 북경

- 카페/바 업태를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은 현지식으로 조사되었음.
- 현지식을 제외하면 고객들은 한식당으로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스트푸드’ 업태에서는 미국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 서양식에는 모든 서양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값이며, 기타 아시안은 한식, 중식, 일식을 제외한 모든 아시안 음식을 포함하는 값임. 업태별로 가장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에 대한 응답으로 도출

11) 2014년 설문 조사에는 현지식이 설문 내용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유의

[북경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	-	-	-	-
				-	-	-	-	-
		2014	전체	한식	미국식	이탈리아식	일식	프랑스식
				34.2%	16.6%	13.4%	12.6%	9.2%
		2015	전체	현지식	한식	미국식	프랑스식	일식
				50.4%	17.6%	13.5%	6.7%	5.0%
			파인 다이닝	현지식	한식	프랑스식	일식	미국식
				37.6%	24.8%	13.3%	8.5%	6.5%
			캐주얼 다이닝	현지식	한식	일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84.1%	11.3%	1.8%	0.9%	0.8%
		패스트푸드	현지식	미국식	한식	일식	이탈리아식	
		53.9%	24.5%	14.0%	3.1%	3.0%		
카페/바	미국식	한식	현지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24.8%	21.3%	17.4%	14.1%	11.0%			

(2015년 샘플: n=400, 전체)

□ 상해

-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업태에서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은 현지식으로 조사되었음.
- 현지식을 제외하면 고객들은 한식과 미국식 에스닉 식당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인 다이닝’ 과 ‘캐주얼 다이닝’ 업태의 경우 프랑스식 과 일식의 비율이 한식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상해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일식	태국식	이탈리아식	미국식	프랑스식
				53.5%	21.5%	8.0%	6.5%	5.5%
		2014	전체	한식	일식	미국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24.2%	17.8%	17.8%	17.2%	10.0%
		2015	전체	현지식	한식	미국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52.8%	15.2%	11.4%	7.4%	5.5%
			파인 다이닝	현지식	한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일식
				33.1%	24.2%	15.0%	9.5%	9.1%
			캐주얼 다이닝	현지식	한식	일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86.8%	9.2%	1.0%	0.9%	0.9%
		패스트푸드	현지식	미국식	한식	일식	이탈리아식	
		61.6%	23.8%	9.1%	2.8%	1.9%		
카페/바	현지식	미국식	한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28.1%	20.7%	17.0%	13.8%	10.0%			

(2015년 샘플: n=400, 전체)

□ **총칭**

-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업태에서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은 파인다이닝과 카페/바 업태를 제외한 업태에서 현지식으로 조사되었음.
- 현지식을 제외하면 고객들은 한식과 미국식, 프랑스식 에스닉 식당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페/바’ 업태의 경우 한식과 프랑스식의 비율이 한식 높은 것으로 조사됨.

[총칭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	-	-	-	-
				-	-	-	-	-
		2014	전체	-	-	-	-	-
				-	-	-	-	-
		2015	전체	현지식	한식	프랑스식	미국식	이탈리아식
				41.2%	35.9%	7.0%	6.6%	4.6%
			파인 다이닝	한식	현지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스페인식
				48.1%	24.9%	11.3%	7.2%	2.6%
			캐주얼 다이닝	현지식	한식	미국식	인도식	태국식
				69.0%	27.7%	1.7%	1.1%	0.5%
		패스트푸드	현지식	한식	미국식	일식	프랑스식	
			60.8%	20.5%	16.5%	1.2%	0.6%	
카페/바	한식	프랑스식	현지식	이탈리아식	미국식			
	43.1%	16.0%	12.8%	10.5%	8.4%			

(2015년 샘플: n=400, 전체)

□ **타이베이**

- 한식의 경우, 타이베이 고객들이 타 조사 도시들의 결과에 비해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파인 다이닝 업태에서 일식과 미국식의 자주 방문하는 비율이 각각 35.1%와 25.4%로 조사됨.
- 캐주얼 다이닝 업태의 경우 중식의 비율이 약 60%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패스트푸드와 카페/바 업태에서는 미국식이 타 에스닉 식당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타이베이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	-	-	-	-
				-	-	-	-	-
		2014	전체	-	-	-	-	-
				-	-	-	-	-
		2015	전체	미국식	중식	일식	이탈리아식	한식
				36.4%	27.2%	18.2%	6.8%	4.3%
			파인 다이닝	일식	미국식	중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35.1%	25.4%	10.8%	9.6%	9.4%
			캐주얼 다이닝	중식	일식	미국식	한식	이탈리아식
				61.3%	15.0%	8.7%	6.4%	5.1%
		패스트푸드	미국식	일식	중식	한식	이탈리아식	
			85.0%	8.0%	3.0%	2.3%	0.6%	
카페/바	미국식	이탈리아식	중식	프랑스식	일식			
	64.9%	14.9%	6.1%	5.4%	4.6%			

(2015년 샘플: n=400, 전체)

□ 홍콩

- 2014년의 경우, 일식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비율은 48.0%임.
- 전체적으로 중식의 비율이 약 30% 이상이며, 가장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으로 조사됨.
- 파인 다이닝에서는 일식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캐주얼 다이닝 업태와 패스트푸드 업태에서는 중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카페/바 업태에서는 미국식이 약 64%의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됨.

[홍콩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	-	-	-	-
				-	-	-	-	-
		2014	전체	일식	미국식	한식	태국식	이탈리아식
				48.0%	16.0%	9.8%	7.2%	6.2%
		2015	전체	중식	미국식	일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32.1%	21.0%	17.5%	11.5%	6.6%
			파인 다이닝	일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미국식	중식
				23.4%	23.2%	18.8%	11.5%	7.8%
			캐주얼 다이닝	중식	일식	미국식	한식	이탈리아식
				53.8%	19.9%	8.8%	5.3%	5.1%
패스트푸드	중식	미국식	일식	이탈리아식	멕시코식			
46.0%	30.2%	12.5%	4.2%	1.8%				
카페/바	미국식	이탈리아식	일식	프랑스식	중식			
	57.1%	16.0%	7.5%	6.3%	3.6%			

(2015년 샘플: n=400, 전체)

□ 자카르타

- 자카르타에서 고객들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은 미국식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식과 한식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파인 다이닝’ 과 ‘캐주얼 다이닝’ 업태에서 일식의 비율이 각각 한식과 중식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음.
- ‘패스트푸드’ 와 ‘카페/바’ 업태에서는 미국식의 비율이 타 에스닉에 비해 높은 비율로 조사됨.

[자카르타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	-	-	-	-
				-	-	-	-	-
		2014	전체	-	-	-	-	-
				-	-	-	-	-
		2015	전체	미국식	일식	한식	중식	이탈리아식
				29.4%	21.8%	19.5%	15.4%	6.3%
			파인 다이닝	일식	한식	중식	미국식	없음
				26.7%	24.1%	22.1%	15.3%	6.8%
			캐주얼 다이닝	일식	중식	미국식	한식	없음
				22.7%	22.1%	20.0%	17.0%	8.4%
		패스트푸드	미국식	일식	한식	중식	이탈리아식	
			43.8%	20.6%	17.8%	11.6%	4.2%	
카페/바	미국식	일식	한식	이탈리아식	중식			
	40.0%	16.2%	16.1%	13.6%	7.1%			

(2015년 샘플: n=400, 전체)

□ 호치민

- 2013년과 2014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각 일식과 한식이 가장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으로 조사되었음.
- 2015년도에는 모든 업태에서 베트남 현지식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식당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든 업태에서 한식으로 조사되었음.

[호치민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일식	중식	기타	태국식	이탈리아식
				43.0%	29.5%	9.0%	7.5%	4.0%
		2014	전체	한식	일식	중식	미국식	이탈리아식
				37.2%	19.6%	12.2%	7.4%	7.0%
		2015	전체	현지식	한식	일식	미국식	이탈리아식
				46.6%	21.8%	10.0%	8.2%	4.2%
			파인 다이닝	현지식	한식	일식	중식	프랑스식
				27.9%	27.4%	18.5%	7.1%	6.2%
			캐주얼 다이닝	현지식	한식	일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56.0%	24.5%	8.7%	2.8%	2.4%
		패스트푸드	현지식	한식	미국식	일식	이탈리아식	
			38.5%	24.4%	19.6%	7.0%	6.8%	
카페/바	현지식	한식	일식	미국식	이탈리아식			
	60.8%	13.4%	6.3%	5.5%	4.6%			

(2015년 샘플: n=400, 전체)

□ 싱가포르

- 싱가포르 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으로는 전체적으로 미국식과 중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파인 다이닝’ 과 ‘캐주얼 다이닝’ 에서 중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와 ‘카페/바’ 업태에서는 미국식이 각각 78.2%와 50.1%로 조사되었음.

[싱가포르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	-	-	-	-
				-	-	-	-	-
		2014	전체	-	-	-	-	-
				-	-	-	-	-
		2015	전체	미국식	중식	일식	한식	이탈리아식
				31.9%	29.4%	15.5%	6.6%	5.3%
			파인 다이닝	중식	일식	미국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23.6%	22.2%	14.6%	11.0%	10.9%
			캐주얼 다이닝	중식	일식	한식	미국식	이탈리아식
				59.7%	15.0%	9.0%	9.0%	3.2%
		패스트푸드	미국식	중식	일식	퓨전식	없음	
		78.2%	6.5%	6.0%	2.9%	2.1%		
카페/바	미국식	일식	중식	한식	이탈리아식			
	50.1%	14.8%	12.5%	6.0%	5.0%			

(2015년 샘플: n=400, 전체)

□ **방콕**

- 방콕 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은 전체적으로 태국 현지식과 일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파인 다이닝’ 업태에서는 중식과 일식이 각각 31.6%, 24.5%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패스트푸드’ 업태에서는 미국식이 약 46%의 비율로 조사됨.
- ‘캐주얼 다이닝’ 과 ‘카페/바’ 업태에서는 태국 현지식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각각 일식과 미국식으로 조사됨.

[방콕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	-	-	-	-
				-	-	-	-	-
		2014	전체	-	-	-	-	-
				-	-	-	-	-
		2015	전체	현지식	일식	미국식	중식	한식
				28.4%	24.5%	18.6%	12.0%	10.9%
			파인 다이닝	중식	일식	현지식	한식	미국식
				31.6%	24.5%	18.2%	12.4%	7.7%
			캐주얼 다이닝	현지식	일식	한식	미국식	중식
				44.1%	34.1%	9.8%	5.3%	2.6%
		패스트푸드	미국식	일식	현지식	한식	이탈리아식	
			46.0%	18.5%	15.2%	12.3%	4.7%	
카페/바	현지식	미국식	일식	한식	이탈리아식			
	37.7%	27.3%	15.4%	8.1%	4.3%			

(2015년 샘플: n=400, 전체)

□ 뉴욕

- 뉴욕 내에서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비율을 조사 했을 때, 미국 현지식과 이탈리아식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파인 다이닝’ 업태에서는 이탈리아식 에스닉 식당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나머지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업태에서는 미국 현지식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패스트푸드’와 ‘카페/바’에서는 약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뉴욕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	-	-	-	-
				-	-	-	-	-
		2014	전체	이탈리아식	중식	멕시코식	스페인식	일식
				31.2%	22.0%	13.4%	7.4%	7.2%
		2015	전체	현지식	이탈리아식	한식	중식	멕시코식
				43.7%	17.9%	11.4%	6.5%	5.0%
			파인 다이닝	이탈리아식	현지식	한식	프랑스식	일식
				28.2%	21.6%	15.5%	8.0%	6.6%
			캐주얼 다이닝	현지식	이탈리아식	중식	한식	일식
				43.5%	21.3%	10.1%	8.0%	5.9%
		패스트푸드	현지식	이탈리아식	중식	멕시코식	한식	
		61.8%	9.8%	9.0%	7.9%	7.3%		
카페/바	현지식	한식	이탈리아식	스페인식	프랑스식			
	60.5%	12.6%	6.1%	4.6%	3.6%			

(2015년 샘플: n=400, 전체)

□ LA

- LA의 경우 모든 업태에서 미국 현지식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식당으로 조사되었음.
- ‘파인 다이닝’ 업태에서는 이탈리아식과 한식이 각각 25.2%와 13.0%의 비율로 현지식 다음으로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으로 조사됨.
- 나머지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업태에서 모두 멕시코식이 현지식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LA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	-	-	-	-
				-	-	-	-	-
		2014	전체	멕시코식	이탈리아식	중식	일식	태국식
				34.0%	21.2%	14.4%	6.4%	5.0%
		2015	전체	현지식	멕시코식	이탈리아식	한식	중식
				42.7%	15.3%	13.9%	9.2%	6.1%
			파인 다이닝	현지식	이탈리아식	한식	프랑스식	멕시코식
				31.2%	25.2%	13.0%	7.5%	7.5%
			캐주얼 다이닝	현지식	멕시코식	이탈리아식	한식	중식
				29.2%	20.4%	18.5%	9.1%	8.8%
		패스트푸드	현지식	멕시코식	중식	한식	이탈리아식	
		55.5%	22.6%	7.1%	5.7%	3.8%		
카페/바	현지식	멕시코식	한식	이탈리아식	스페인식			
	59.0%	10.2%	8.4%	4.9%	4.1%			

((2015년 샘플: n=400, 전체))

□ 동경

- 동경의 경우, ‘파인 다이닝’ 업태에서 프랑스식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뒤로 현지식과 이탈리아식이 각각 23.4%와 22.3%로 조사됨.
- ‘캐주얼 다이닝’ 업태의 경우, 일본 현지식이 44.8%의 비율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 ‘패스트푸드’ 업태에서 미국식의 비율이 47.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카페/바’ 업태에서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으로 이탈리아식이 34.6%의 비율로 조사되었음.

[동경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조사 방식	항목	조사년도	업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에스닉	2013	전체	-	-	-	-	-
				-	-	-	-	-
		2014	전체	인도식	이탈리아식	중식	미국식	프랑스식
				33.6%	28.6%	17.2%	6.0%	4.6%
		2015	전체	현지식	미국식	이탈리아식	중식	프랑스식
				37.0%	23.3%	21.5%	7.6%	4.8%
			파인 다이닝	프랑스식	현지식	이탈리아식	중식	한식
				33.7%	23.4%	22.3%	12.7%	3.3%
			캐주얼 다이닝	현지식	이탈리아식	중식	미국식	프랑스식
				44.8%	26.9%	13.1%	5.9%	2.7%
		패스트푸드	미국식	현지식	이탈리아식	중식	한식	
		47.9%	35.6%	7.3%	4.0%	1.7%		
카페/바	이탈리아식	일식	미국식	프랑스식	태국식			
	34.6%	31.4%	26.1%	2.2%	1.3%			

(2015년 샘플: n=400, 전체)

4. 한식 공급자 지표

4.1 한식당 수

- 한식당 경영주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한식당 수는 동경 이외의 나머지 도시에서 증가하였음.

[한식당 규모]

(단위: 수)

도시	2011	2012	2013	2014	2015
북경	-	511	-	1,049	1,464
상해	-	282	-	576	1,633
충칭	-	43	-	-	267
홍콩	-	111	-	-	456
타이베이	-	139	-	-	403
자카르타	-	67	-	-	103
호치민	-	130	-	-	179
싱가포르	-	119	-	-	203
방콕	-	59	-	-	96
뉴욕	355	-	-	619	582
LA	471	-	-	838	890
동경	-	-	-	1,618	1,553

4.2 프랜차이즈 비율

- 북경과 상해를 제외한 모든 조사 도시에서 비프랜차이즈 운영형태의 식당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북경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모두 약 5%의 비율로 프랜차이즈 운영형태의 식당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호치민과 미국 권역의 뉴욕, LA에서는 비프랜차이즈 형태의 식당 비율이 90%이상을 넘는 것으로 조사됨.

[한식당 프랜차이즈 비율]¹²⁾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4		2015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경영주 설문	프랜차이즈 비율	북경	52.6%	47.4%	52.9%	47.1%
		상해	49.8%	50.2%	53.7%	46.3%
		충칭	-	-	41.0%	59.0%
		홍콩	-	-	33.3%	66.7%
		타이베이	-	-	30.6%	69.4%
		자카르타	-	-	40.6%	59.4%
		호치민	-	-	9.2%	90.8%
		싱가포르	-	-	30.0%	70.0%
		방콕	-	-	36.7%	63.3%
		뉴욕	20.9%	79.1%	3.2%	96.8%
		LA	19.8%	80.2%	8.3%	91.7%
		동경	19.3%	80.7%	22.8%	77.2%

12) 뉴욕, LA, 동경의 경우, 2015년 조사 시 프랜차이즈 식당 응답률이 저조하였음.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3 객단가

- 동경의 한식당 객단가가 다른 조사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호치민의 전체 한식당 객단가의 평균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충칭의 패스트푸드 업태 객단가는 2.9US 달러로 전체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한식당 객단가]

(단위 : US 달러)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5	업태별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경영주 설문	한식당 객단가	북경	10.0	19.5	9.8	4.8	10.9
		상해	11.5	21.6	10.9	5.1	-
		충칭	7.5	-	7.7	2.9	-
		홍콩	14.3	-	14.9	9.7	9.0
		타이베이	9.5	-	9.7	6.1	-
		자카르타	21.1	21.6	20.0	-	-
		호치민	5.0	9.2	5.6	3.3	2.6
		싱가포르	16.0	29.7	16.2	5.9	11.9
		방콕	6.8	7.1	6.8	-	7.9
		뉴욕	22.3	-	22.8	-	-
		LA	22.2	-	22.4	15.0	30.0
		동경	95.0	122.9	96.3	11.5	4.9

4.4 경영주 국적

- 한식당을 경영하는 경영주 중 한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자카르타(87.5%)’ 로 조사됨.
- 한국계 현지인인 경영주의 비율이 높은 곳은 ‘뉴욕(85.4%)’ 과 ‘LA(83.0%)’ 로 조사됨.
- 현지인 경영주의 비율은 충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됨.
- 한국인, 재외동포, 현지인을 제외한 제3국인이 직접 한식당을 경영하는 경우는 약 0%-6%로 낮게 조사됨.

[한식당 경영주 국적]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4				2015			
			한국인	한국계 현지인	현지인	외국인	한국인	한국계 현지인	현지인	외국인
경영주 설문	경영주 국적	북경	24.6%	5.9%	66.0%	0.6%	31.4%	0.5%	68.1%	0.0%
		상해	29.0%	6.9%	63.0%	1.1%	35.4%	1.8%	61.4%	1.4%
		충칭	-	-	-	-	16.3%	0.0%	81.3%	2.5%
		홍콩	-	-	-	-	45.5%	12.1%	42.4%	0.0%
		타이베이	-	-	-	-	41.9%	1.2%	51.2%	5.8%
		자카르타	-	-	-	-	87.5%	3.1%	9.4%	0.0%
		호치민	-	-	-	-	60.3%	2.9%	36.8%	0.0%
		싱가포르	-	-	-	-	54.8%	3.2%	35.5%	6.5%
		방콕	-	-	-	-	56.7%	0.0%	43.3%	0.0%
		뉴욕	-	-	-	-	14.6%	85.4%	0.0%	0.0%
		LA	-	-	-	-	14.9%	83.0%	0.0%	2.1%
		동경	-	-	-	-	69.7%	5.6%	23.6%	1.0%

4.5 고객 구성

- 한식당을 방문하는 고객의 비율 중 현지인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가장 높음.
- 자카르타와 뉴욕, LA에서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 고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 고객의 비율은 2.5%~11%를 차지하며, 평균은 6.2%로 나타남.

[고객 구성]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한국인/한국계	현지인	외국인
경영주 설문	고객 구성	북경	20.7%	74.8%	4.5%
		상해	21.1%	74.8%	4.1%
		충칭	15.7%	81.8%	2.5%
		홍콩	13.6%	82.2%	4.2%
		타이베이	11.9%	81.9%	6.2%
		자카르타	62.0%	29.8%	8.2%
		호치민	39.7%	54.8%	5.5%
		싱가포르	25.0%	68.8%	6.2%
		방콕	17.0%	74.3%	8.7%
		뉴욕	52.4%	36.7%	11.0%
		LA	50.6%	41.9%	7.4%
		동경	14.7%	79.8%	5.5%

4.6 한국산 식재료 사용 현황

- 한식당에서 사용하는 한국산 식재료의 중 한국산 소스 및 장류의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주류의 사용률 또한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한식당에서 한국산 또는 국산 브랜드의 식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산 또는 국산 브랜드 식재료 사용 현황]

(단위 : %)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채소류	소스 및 장류	면, 쌀, 떡류	주류	육류, 어류 젓갈류	기타
경영주 설문	한국산 식재료 사용 현황	북경	65.2	84.7	71.2	76.5	69.1	26.6
		상해	59.4	89.8	71.0	83.0	67.8	36.7
		충칭	50.0	83.8	62.5	81.3	60.0	57.5
		홍콩	78.8	90.9	87.9	72.7	81.8	15.2
		타이베이	98.8	98.8	98.8	90.7	97.7	1.2
		자카르타	56.3	100.0	93.8	96.9	96.9	93.8
		호치민	50.7	58.0	42.0	44.9	11.6	21.7
		싱가포르	90.3	93.5	83.9	74.2	77.4	38.7
		방콕	96.7	93.3	90.0	90.0	83.3	80.0
		뉴욕	37.2	76.7	74.4	41.9	34.9	58.1
		LA	29.8	80.9	63.8	44.7	27.7	57.4
		동경	52.3	90.9	90.9	69.5	34.5	76.1

4.7 해외 한식당 경영 지수¹³⁾

- 매출액, 고객 수, 인건비 등 한식당 경영 현황과 관련된 6가지 항목에 대하여 전년 실적 대비 올해 실적의 변화를 증가/비슷함/감소 세 가지로 응답받음.

[해외 한식당 경영 지수 산출 방식]

$$\text{해외한식당 경영 지수} = 100 + \frac{\text{'증가'라고 답한 경영주수} - \text{'감소'라고 답한 경영주수}}{\text{조사대상 경영주수}} \times 100$$

1) 경영 지수 실적 및 변화 (전년 비교 및 내년 전망)

□ 매출액 지수

- 충청을 제외한 전체 도시에서 매출액의 변화 추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LA의 매출액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방콕과 호치민의 매출액 변화가 크게 상승함.
- 향후 한식당 매출액의 변화 예상으로는 LA의 매출액이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서 호치민 한식당의 매출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상해와 충청에서의 한식당 매출액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4-'15년 한식당 매출액 지수]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4		2015	
			전년 비교	내년 전망	전년 비교	내년 전망
경영주 설문	매출액	북경	145.0	166.3	111.6	112.2
		상해	124.0	148.0	103.7	90.7
		충청	-	-	81.6	79.2
		홍콩	-	-	140.6	136.4
		타이베이	-	-	115.3	116.5
		자카르타	-	-	103.2	51.6
		호치민	-	-	145.9	152.3
		싱가포르	-	-	123.3	123.3
		방콕	-	-	146.7	146.7
		뉴욕	-	-	135.3	138.2
		LA	-	-	158.5	160.5
		동경	93.3	102.7	113.0	129.0

13) 한식당 경영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함.

□ 고객 지수

- 14-15년 한식당 고객 수 변화 추이는 LA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호치민과 홍콩의 고객 수 상승폭 또한 타 도시들에 비해 크게 조사됨.
- 충청의 경우 유일하게 기준치보다 낮은 지수로 조사되었음.
- LA의 한식당 방문 고객 수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됨.
- 호치민과 뉴욕에서의 한식당 고객 수 변화가 높을 것으로 나타남.

[14-'15년 한식당 고객 지수]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4		2015	
			전년 비교	내년 전망	전년 비교	내년 전망
경영주 설문	고객 수	북경	161.8	170.8	112.2	111.7
		상해	137.0	157.7	103.3	93.5
		충청	-	-	81.6	77.9
		홍콩	-	-	143.8	139.4
		타이베이	-	-	111.8	111.8
		자카르타	-	-	103.2	41.9
		호치민	-	-	146.8	152.3
		싱가포르	-	-	131.0	131.0
		방콕	-	-	133.3	130.0
		뉴욕	-	-	138.2	147.1
		LA	-	-	161.0	162.8
		동경	100.7	113.0	116.8	129.5

□ 인건비 지수

- 14-15년 한식당 인건비 변화 추이는 LA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이어서 충청의 인건비 변화 폭 또한 타 도시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타이베이와 동경에서 패스트푸드 업체의 인건비 변화 추이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자카르타의 경우 전년 대비 내년에 고객은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한식당 경영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경과 상해에서도 올해 대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

[14-'15년 한식당 인건비 지수]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4		2015	
			전년 비교	내년 전망	전년 비교	내년 전망
경영주 설문	인건비	북경	131.4	143.1	140.4	173.0
		상해	117.7	121.7	153.1	173.6
		충칭	-	-	168.9	168.4
		홍콩	-	-	137.5	139.4
		타이베이	-	-	134.1	138.7
		자카르타	-	-	119.4	193.5
		호치민	-	-	119.7	123.1
		싱가포르	-	-	137.9	148.3
		방콕	-	-	153.3	153.3
		뉴욕	-	-	161.8	161.8
		LA	-	-	177.5	183.7
		동경	106.3	107.0	115.5	114.6

□ 식재료 가격 지수

- 14-15년 한식당 식재료가의 변화 추이는 타이베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이어서, 홍콩에서의 식재료가 변화 추이가 기준치 보다 높이 상승한 193.8으로 조사됨.
- 호치민에서의 식재료가 변화 추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타이베이와 자카르타, 그리고 홍콩에서의 한식당 식재료 가격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홍콩의 경우 파인다이닝 업태를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14-'15년 한식당 식재료가 지수]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4		2015	
			전년 비교	내년 전망	전년 비교	내년 전망
경영주 설문	식재료가	북경	156.9	158.9	139.3	159.2
		상해	150.7	149.7	144.1	160.9
		충칭	-	-	152.6	157.9
		홍콩	-	-	193.8	197.0
		타이베이	-	-	197.6	197.6
		자카르타	-	-	146.7	196.8
		호치민	-	-	113.1	167.7
		싱가포르	-	-	160.7	178.6
		방콕	-	-	160.0	163.3
		뉴욕	-	-	176.5	182.9
		LA	-	-	180.0	188.1
		동경	155.0	151.7	161.6	161.0

□ 임대료 지수

- 14-15년 한식당 임대료 변동 추이는 LA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캐주얼 다이닝 업태의 한식당 임대료 변동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호치민과 동경의 경영주들은 내년도 임대료의 변동 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한식당 경영주들은 한식당의 임대료는 상해에서 가장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어서 LA의 한식당 임대료 또한 우려할 수준이라고 예상하였음

[‘14-’15년 한식당 임대료 지수]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4		2015	
			전년 비교	내년 전망	전년 비교	내년 전망
경영주 설문	임대료	북경	140.5	147.3	118.6	122.8
		상해	148.0	149.3	121.6	191.6
		충칭	-	-	138.7	142.7
		홍콩	-	-	115.6	115.2
		타이베이	-	-	109.5	109.5
		자카르타	-	-	132.3	164.5
		호치민	-	-	103.3	104.6
		싱가포르	-	-	107.4	134.5
		방콕	-	-	106.9	117.2
		뉴욕	-	-	136.4	165.7
		LA	-	-	170.3	187.2
		동경	81.7	76.7	105.4	104.8

□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수

- 14-15년 한식당 홍보 및 마케팅 변화 추이는 홍콩과 타이베이에서 가장 높은 변화 폭을 보이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뉴욕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12개 도시의 한식당 경영주 설문 조사 결과, 홍콩과 타이베이에서의 홍보 및 마케팅 변화 예상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남. 또한 모든 업체에서도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임.
- 자카르타의 경우 기준치보다 낮은 지수를 보이며 한식당 홍보 및 마케팅 변화에 대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14-'15년 한식당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수]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4		2015	
			전년 비교	내년 전망	전년 비교	내년 전망
경영주 설문	홍보 및 마케팅	북경	-	-	120.3	125.3
		상해	-	-	117.0	127.2
		충칭	-	-	114.7	114.7
		홍콩	-	-	100.0	100.0
		타이베이	-	-	100.0	100.0
		자카르타	-	-	103.2	96.8
		호치민	-	-	115.0	112.5
		싱가포르	-	-	100.0	100.0
		방콕	-	-	110.0	110.0
		뉴욕	-	-	100.0	100.0
		LA	-	-	115.4	100.0
		동경	-	-	107.5	109.7

5. 한식 소비자 지표

5.1 한식당 방문 빈도

- 중징과 홍콩의 최근 1개월 내 한식당 방문 빈도가 각각 3.78회, 3.38회로 가장 많으며, 동경의 경우 0.55회로 가장 적은 방문 빈도를 보이고 있음.
- 모든 도시의 월평균 한식당 방문 빈도는 약 2.37회임. 홍콩, 자카르타, 뉴욕, LA에서 평균보다 높은 한식당 방문 빈도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월평균 한식당 방문 빈도는 ‘동경(0.55회), 타이베이(1.64회)’ 등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 한식당 방문 빈도]

(단위 : 회/월)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자 설문	한식당 방문 빈도	북경	-	-	-	-	2.94	2.31
		상해	-	-	-	1.50	2.75	3.38
		중징	-	-	-	-	-	3.78
		홍콩	-	-	-	-	1.52	2.75
		타이베이	-	-	-	-	-	1.64
		자카르타	-	-	-	-	-	2.45
		호치민	-	-	-	1.11	3.30	2.10
		싱가포르	0.53	-	-	-	-	1.96
		방콕	-	-	-	-	-	1.83
		뉴욕	-	-	-	-	4.33	2.95
		LA	-	-	-	-	3.49	2.72
		동경	-	-	-	-	0.62	0.55

5.2 한식 취식 경험 비율

- 최근 1개월 내 현지 소비자 중 한식을 취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12개 도시 평균 87.2%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상해’, ‘뉴욕’, ‘홍콩’ 에서 한식 취식경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홍콩’ 과 ‘방콕’ 에서 최근 1개월 내 가장 높은 한식 경험 비율을 보인 반면, ‘동경’ 외식소비자들의 가장 낮은 한식 취식경험을 보임.

[한식 취식 경험 비율]¹⁴⁾

(단위 : %)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자 설문	한식 취식 비율	북경	-	-	-	-	91.4	92.7
		상해	-	-	-	89.8	86.2	91.0
		충칭	-	-	-	-	-	89.5
		홍콩	-	81.5	-	-	88.0	96.8
		타이베이	-	-	-	-	-	94.2
		자카르타	-	-	-	-	-	91.2
		호치민	-	-	-	91.9	91.6	94.9
		싱가포르	87.2	-	-	-	-	93.9
		방콕	-	63.1	-	-	-	96.1
		뉴욕	-	-	-	-	56.2	77.2
		LA	-	-	-	-	61.8	83.9
		동경	-	-	-	-	81.4	68.3

(2015년 샘플: n=400, 전체)

14) 2014년 데이터는 시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한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지를 직접 설문한 결과임.

5.3 한식당 방문 경험 비율¹⁵⁾

- 홍콩과 동경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 도시에서 2014년도에 비해 최근 1개월 내 한식당 방문 경험 비율이 상승하였음. 홍콩의 경우 약 0.5% 소폭 감소하였으며, 동경의 경우 큰 약 3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최근 1개월 내 한식당 방문 경험 비율은 방콕이 가장 높은 비율인 92.6%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충칭(88.4%), 북경(88.0%), 홍콩 순임.
- 최근 1개월 내 동경의 한식당 방문 경험 비율은 33.3%로 조사되었으며, 타 조사 도시들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남.

[한식당 방문 경험 비율]

(단위 : %)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4	2015
소비자 설문	한식당 방문 경험 비율	북경	86.6%	88.0
		상해	78.8%	86.6
		충칭	-	88.4
		홍콩	87.2%	86.7
		타이베이	-	78.6
		자카르타	-	86.8
		호치민	78.6%	85.2
		싱가포르	-	85.5
		방콕	-	92.6
		뉴욕	51.2%	72.9
		LA	56.8%	77.4
		동경	65.4%	33.3

(2015년 샘플: n=400, 전체)

15) 2014년 데이터는 시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한식당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를 직접 설문한 결과임.

5.4 1회당 한식 외식 지출 금액

- 2014년과 2015년 모두 뉴욕에서의 1회당 한식 외식 시 지출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호치민에서는 1회당 한식 외식 시 지출 금액이 약 13.9US 달러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뉴욕에서는 약 40US 달러로 가장 높은 지출 금액으로 나타나며, 이는 현지 물가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보임.

[1회당 한식 외식 지출 금액]

(단위 : US 달러)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자 설문	1회당 한식 외식 지출 비용	북경	-	-	-	-	16.7	16.5
		상해	-	-	-	17.4	18.0	21.6
		충칭	-	-	-	-	-	19.2
		홍콩	-	20.5	-	-	23.1	24.3
		타이베이	-	-	-	-	-	14.6
		자카르타	-	-	-	-	-	19.0
		호치민	-	-	-	18.1	28.9	13.9
		싱가포르	13.3	-	-	-	-	25.5
		방콕	-	17.4	-	-	-	17.4
		뉴욕	-	-	-	-	48.7	40.7
		LA	-	-	-	-	37.2	28.6
		동경	-	-	-	-	28.9	20.7

5.5 자주 가는 한식당 업태

- 자카르타를 제외한 모든 설문 조사 도시에서 ‘캐주얼 다이닝’에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것으로 조사됨.
- 호치민과 동경의 소비자들은 ‘파인 다이닝’ 업태보다 ‘패스트푸드’ 업태의 한식당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자주 방문하는 한식당 업태]

(단위 : %)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4				2015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 푸드	카페 /바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 푸드	카페 /바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한식당 업태	북경	25.5	59.2	15.0	0.2	21.0	61.2	13.9	3.9
		상해	19.7	65.9	14.4	0.0	25.4	50.7	11.9	12.0
		충칭	-	-	-	-	29.4	44.4	13.1	13.1
		홍콩	24.6	66.0	9.4	0.0	17.1	67.3	9.7	5.9
		타이베이	-	-	-	-	12.9	83.9	1.5	1.6
		자카르타	-	-	-	-	32.4	32.1	28.5	7.0
		호치민	20.7	54.2	24.5	0.5	14.1	59.9	19.6	6.5
		싱가포르	-	-	-	-	16.8	66.8	8.3	8.1
		방콕	-	-	-	-	16.9	61.1	18.3	3.7
		뉴욕	24.7	50.3	25.1	0.0	20.1	50.1	18.8	11.0
		LA	20.3	60.6	19.0	0.0	16.4	63.8	15.7	4.1
		동경	5.0	90.2	4.7	0.0	3.2	86.2	7.3	3.3

5.6 한식당 만족도, 추천의향 및 순 추천고객 지수

- 글로벌 주요 12개 거점도시의 현지 외식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식당 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LA 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동경은 6.10점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순 추천고객 지수(Net Promoter Score, NPS) 산출 결과, ‘LA’에서 가장 높은 지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칭’과 ‘뉴욕’의 소비자들의 경우 각각 39.5점, 36.9점으로 한식당 추천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식당 만족도]

(단위 : 점)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1	2015
소비자 설문	한식당 만족도	북경	-	8.22
		상해	-	8.26
		충칭	-	8.37
		홍콩	6.94	7.29
		타이베이	-	7.11
		자카르타	-	7.96
		호치민	-	7.95
		싱가포르	-	7.32
		방콕	7.44	8.06
		뉴욕	-	8.40
		LA	-	8.51
		동경	-	6.10

[한식당 추천의향 및 순 추천고객 지수]¹⁶⁾

(단위 : 점)

분석 방식	항 목	도시	2011	2015	
			한식당 추천의향	한식당 추천의향	순 추천고객 지수
소비자 설문	한식당 추천의향 및 순 추천고객 지수	북경	-	8.10	27.2
		상해	-	8.21	32.4
		충칭	-	8.33	39.5
		홍콩	6.38	7.05	-17.2
		타이베이	-	6.90	-26.4
		자카르타	-	7.85	16.8
		호치민	-	7.99	24.5
		싱가포르	-	7.21	-14.8
		방콕	7.04	7.83	16.8
		뉴욕	-	8.21	36.9
		LA	-	8.33	41.3
		동경	-	5.95	-65.0

16) 순 추천고객 지수(NPS) =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고객의 충성도를 지수로 표현한 방법으로 추천고객(9,10점) 비율에서 비추천고객(0-6점) 비율을 뺀 결과 값임.

6. Appendix) 보고서 Index

구분	Lev_1	Lev_2	국가/도시	단위	개별 지표명	지표 설명	출처
전체	소비자 설문 정의	파인다이닝	도시	-	파인다이닝	소비자 인식 상 분위기와 접객서비스가 우수하고, 고품질, 고가인 풀서비스 레스토랑을 의미함. 테이블서비스와 풀서비스 그리고 코스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요한 날 또는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고급 풀서비스 레스토랑으로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높음.	14년 글로벌외식조사사업
		캐주얼다이닝	도시	-	캐주얼다이닝	일반적인 수준의 요리와 접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정적인 알콜을 판매하는 식당으로 소비자 인식 상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풀서비스 레스토랑.	14년 글로벌외식조사사업
		패스트푸드	도시	-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는 규격화되고 제한된 메뉴에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일컫음. 음식은 일정하게 정해진 양과 재료에 따라 조리되며, 품목별로 개별 포장됨. 비교적 쉽고 미숙련된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은 카운터에서 주문 및 픽업을 함.	유로모니터
		카페/바	도시	-	카페/바	주요 메뉴는 주류 및 음료이지만, 음식도 제공하는 식당을 일컫음.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 또는 간식류보다는 음료/주류만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 카페/바 카테고리는 카페, 바, 호프, 커피전문점, 주스/스무디 전문점 등을 포함함.	유로모니터
거시 지표	국가 지표	인구 수	국가	만 명	인구 수	해당 국가의 총 거주 인구수	데스크리서치
		GDP	국가	10억 US 달러	GDP	해당 국가의 연간 국내 총 생산(GDP)	데스크리서치
		1인당 GDP	국가	US 달러	1인당 GDP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내 총 생산(GDP)	데스크리서치
		경제성장률	국가	%	경제성장률	연간 경제 성장 지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	데스크리서치
		1인당 가처분 소득	국가	US 달러	1인당 가처분 소득	인구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데스크리서치
		GDP 대비 가처분 소득	국가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	GDP에 대비하여 가처분 소득이 가지는 비율	데스크리서치
		연간 식비지출액	국가	US 달러	연간 식비지출액	연간 해당 국가에서 식비로 지출되는 금액	데스크리서치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국가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비율	가처분 소득에 대비하여 소비되는 식비지출액의 비중	데스크리서치
		물가상승률	국가	%	물가상승률	연간 물가 상승 지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	데스크리서치
		연간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국가	억 USD	연간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및 국가별 외국인 투자금액 등을 소개	데스크리서치
		연간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	국가	명	연간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	연간 해당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의 수	데스크리서치
		연간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	국가	만 명	연간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	연간 한국에서 해당 국가로 방문하는 사람의 수	데스크리서치
	도시 지표	인구 수	도시	만 명	인구 수	해당 국가의 총 거주 인구수	데스크리서치
		GDP	도시	백만 US 달러	GDP	해당 국가의 연간 국내 총 생산(GDP)	데스크리서치
		1인당 GDP	도시	US 달러	1인당 GDP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내 총 생산(GDP)	데스크리서치
		경제성장률	도시	%	경제성장률	연간 경제 성장 지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	데스크리서치
		1인당 가처분 소득	도시	US 달러	1인당 가처분 소득	인구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데스크리서치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도시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GDP에 대비하여 가처분 소득이 가지는 비율	데스크리서치
외식업자 지표	총 매출액	총 매출액	도시	백만 US 달러	총 매출액	외식업 총 매출액(US 달러 기준)	유로모니터 + 소비자 설문
		1인당 매출액	도시	US 달러	1인당 매출액	1인 기준 매출액(US 달러 기준)	유로모니터 + 소비자 설문
	총 식당 수	총 식당 수	도시	개	총 식당 수	외식업 총 식당 수	유로모니터 + 웹크롤링
		1인당 식당 수	도시	개	1인당 식당 수	1인 기준 식당 수	유로모니터 + 웹크롤링
	업태별 매출액	파인 다이닝	도시	%	파인 다이닝 외식업 매출액 비율	파인 다이닝 업태의 외식업 매출액 (2010-2015)	유로모니터 + 소비자 설문

	외식비율	캐주얼 다이닝	도시	%	캐주얼 다이닝 외식당 매출액 비율	캐주얼 다이닝 업체의 외식당 매출액(2010-2015)	유로모니터 + 소비자 설문		
		패스트푸드	도시	%	패스트푸드 외식당 매출액 비율	패스트푸드 업체의 외식당 매출액(2010-2015)	유로모니터 + 소비자 설문		
		카페/바	도시	%	카페/바 외식당 매출액 비율	카페/바 업체의 외식당 매출액(2010-2015)	유로모니터 + 소비자 설문		
		인식비율	파인 다이닝	도시	%	파인 다이닝 외식당 식당 수 비율	파인 다이닝 업체의 외식당 식당 수(2010-2015)	유로모니터 + 웹크롤링	
			캐주얼 다이닝	도시	%	캐주얼 다이닝 외식당 식당 수 비율	캐주얼 다이닝 업체의 외식당 식당 수(2010-2015)	유로모니터 + 웹크롤링	
			패스트푸드	도시	%	패스트푸드 외식당 식당 수 비율	패스트푸드 업체의 외식당 식당 수(2010-2015)	유로모니터 + 웹크롤링	
			카페/바	도시	%	카페/바 외식당 식당 수 비율	카페/바 업체의 외식당 식당 수(2010-2015)	유로모니터 + 웹크롤링	
		외식 소비자 지표	외식 경험		도시	%	외식 경험 비율	외식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소비자 설문
				평균 외식	전체	도시	회/월	평균 외식 빈도	한 달 기준 외식당을 방문한 평균 횟수
			외식 빈도	파인 다이닝	도시	회/월	파인 다이닝 평균 외식 빈도	한 달 기준 파인 다이닝 외식당을 방문한 평균 횟수	소비자 설문
캐주얼 다이닝	도시			회/월	캐주얼 다이닝 평균 외식 빈도	한 달 기준 캐주얼 다이닝 외식당을 방문한 평균 횟수	소비자 설문		
패스트푸드	도시			회/월	패스트푸드 평균 외식 빈도	한 달 기준 패스트푸드 외식당을 방문한 평균 횟수	소비자 설문		
카페/바	도시			회/월	카페/바 평균 외식 빈도	한 달 기준 카페/바 외식당을 방문한 평균 횟수	소비자 설문		
총 지출액 대비 외식 지출 비율				도시	%	총 지출액 대비 외식 지출 비율	총 지출액 중 외식을 했을 때 지출한 금액을 비율로 환산한 지표	소비자 설문	
1회당 지출액(1인 기준)	전체		도시	US 달러	1회당 외식 지출 금액(1인 기준)	외식당을 1회 방문 했을 때 지출한 금액(1인 기준)	소비자 설문		
	파인 다이닝		도시	US 달러	1회당 파인 다이닝 외식 시 지출 금액(1인 기준)	파인 다이닝 외식당을 1회 방문 했을 때 지출한 금액(1인 기준)	소비자 설문		
	캐주얼 다이닝		도시	US 달러	1회당 캐주얼 다이닝 외식 시 지출 금액(1인 기준)	캐주얼 다이닝 외식당을 1회 방문 했을 때 지출한 금액(1인 기준)	소비자 설문		
	패스트푸드	도시	US 달러	1회당 패스트푸드 외식 시 지출 금액(1인 기준)	패스트푸드 외식당을 1회 방문 했을 때 지출한 금액(1인 기준)	소비자 설문			
	카페/바	도시	US 달러	1회당 카페/바 외식 시 지출 금액(1인 기준)	카페/바 외식당을 1회 방문 했을 때 지출한 금액(1인 기준)	소비자 설문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전체	도시	%	전체 통합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업체 구분 없이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비율	소비자 설문			
	파인 다이닝	도시	%	파인 다이닝 업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파인 다이닝 업체 내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비율	소비자 설문			
	캐주얼 다이닝	도시	%	캐주얼 다이닝 업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캐주얼 다이닝 업체 내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비율	소비자 설문			
	패스트푸드	도시	%	패스트푸드 업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패스트푸드 업체 내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비율	소비자 설문			
	카페/바	도시	%	카페/바 업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카페/바 업체 내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비율	소비자 설문			
한식 평가 지표	한식당 수	전체	도시	개	전체 한식당 수	전체 한식당의 수	한식당 현황 조사 사업		
		파인 다이닝	도시	개	파인 다이닝 한식당 수	파인 다이닝 업체의 한식당 수	한식당 현황 조사 사업		
		캐주얼 다이닝	도시	개	캐주얼 다이닝 한식당 수	캐주얼 다이닝 업체의 한식당 수	한식당 현황 조사 사업		
		패스트푸드	도시	개	패스트푸드 한식당 수	패스트푸드 업체의 한식당 수	한식당 현황 조사 사업		
		카페/바	도시	개	카페/바 한식당 수	카페/바 업체의 한식당 수	한식당 현황 조사 사업		
	프랜차이즈 비율	프랜차이즈 비율	도시	%	프랜차이즈 비율	한식당 중 프랜차이즈 운영형태를 가진 한식당 비율	경영주 설문		
비프랜차이즈 비율		도시	%	비프랜차이즈 비율	한식당 중 비프랜차이즈 운영형태를 가진 한식당 비율	경영주 설문			

객단가	전체	도시	US 달러	전체 한식당 객단가	전체 한식당의 평균 객단가	경영주 설문
	파인 다이닝	도시	US 달러	파인 다이닝 한식당 객단가	파인 다이닝 업체 한식당의 평균 객단가	경영주 설문
	캐주얼 다이닝	도시	US 달러	캐주얼 다이닝 한식당 객단가	캐주얼 다이닝 업체 한식당의 평균 객단가	경영주 설문
	패스트푸드	도시	US 달러	패스트푸드 한식당 객단가	패스트푸드 업체 한식당의 평균 객단가	경영주 설문
	카페/바	도시	US 달러	카페/바 한식당 객단가	카페/바 업체 한식당의 평균 객단가	경영주 설문
경영주 국적	한국인	도시	%	한국인 경영주 한식당	한국 국적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비율	경영주 설문
	한국계 현지인	도시	%	한국계 현지인 한식당 경영주	한국계지만 현지 국적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비율	경영주 설문
	현지인	도시	%	현지인 한식당	현지 국적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비율	경영주 설문
	외국인	도시	%	외국인 한식당 경영주	외국 국적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비율	경영주 설문
고객 구성	현지인	도시	%	현지인 고객 비율	한식당을 방문한 고객 중 현지인 고객의 비율	경영주 설문
	한국인 또는 한국계	도시	%	한국인 또는 한국계 고객 비율	한식당을 방문한 고객 중 한국인 또는 한국계 고객의 비율	경영주 설문
	외국인	도시	%	외국인 고객 비율	한식당을 방문한 고객 중 외국인 고객의 비율	경영주 설문
한국산 식재료를	전체	도시	%	전체 한국산 식재료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영주 설문
	한국산 채소류	도시	%	한국산 채소류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채소류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영주 설문
	한국산 소스 및 장류	도시	%	한국산 소스 및 장류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소스 및 장류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영주 설문
	한국산 면, 쌀, 떡류	도시	%	한국산 면, 쌀, 떡류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면, 쌀, 떡류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영주 설문
	한국산 주류	도시	%	한국산 주류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주류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영주 설문
	한국산 육류, 어류, 젓갈류	도시	%	한국산 육류, 어류, 젓갈류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육류, 어류, 젓갈류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영주 설문
한식당 경영 지표	매출액 실적 추이	도시		매출액 실적 추이	한식당 매출액 실적 추이(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고객수 실적 추이	도시		고객수 실적 추이	한식당 고객수 실적 추이(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인건비 변화 추이	도시		인건비 변화 추이	한식당 인건비 변화 추이(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식재료가 변화 추이	도시		식재료가 변화 추이	한식당 식재료 가격 변화 추이(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임대료 변화 추이	도시		임대료 변화 추이	한식당 임대료 변화 추이(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홍보/마케팅 변화 추이	도시		홍보/마케팅 변화 추이	한식당 홍보/마케팅 변화 추이(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매출액 실적 예상	도시		매출액 실적 예상	한식당 매출액 실적 예상(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고객수 실적 예상	도시		고객수 실적 예상	한식당 고객수 실적 예상(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인건비 변화 예상	도시		인건비 변화 예상	한식당 인건비 실적 예상(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식재료가 변화 예상	도시		식재료가 변화 예상	한식당 식재료가 실적 예상(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임대료 변화 예상	도시		임대료 변화 예상	한식당 임대료 실적 예상(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홍보/마케팅 실적 예상	도시		홍보/마케팅 실적 예상	한식당 홍보/마케팅 실적 예상(100 점 기준, 100 점 이상 증가, 100 점 이하 감소)	경영주 설문
	한식 소비자 지표	한식 외식 빈도	도시	회/월	한식 외식 빈도	한 달 기준 외식 시 한식당을 방문한 횟수
한식 경험 비율		도시	%	한식 경험 비율	한식을 경험해 본 사람의 비율	소비자 설문
한식당 방문 경험 비율		도시	%	한식당 방문 경험 비율	한식당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의 비율	소비자 설문
1 회당 한식 외식 금액(1인 기준)		도시	US 달러	1 회당 한식 외식 지출 금액(1인 기준)	1 회 한식 외식 시 지출한 금액(1인 기준)	소비자 설문
자주 가는 한식당 업체		파인 다이닝	도시	%	파인 다이닝 업체 한식당 방문 비율	한식 소비자들이 파인 다이닝 업체의 한식당을 방문하는 비율
	캐주얼 다이닝	도시	%	캐주얼 다이닝 업체 한식당 방문 비율	한식 소비자들이 캐주얼 다이닝 업체의 한식당을 방문하는 비율	소비자 설문
	패스트푸드	도시	%	패스트푸드 업체 한식당 방문 비율	한식 소비자들이 패스트푸드 업체의 한식당을 방문하는 비율	소비자 설문
	카페/바	도시	%	카페/바 업체 한식당 방문 비율	한식 소비자들이 카페/바 업체의 한식당을 방문하는 비율	소비자 설문

한식당 만족도		도시	점	한식당 만족도	한식당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 설문
한식당 추천의향	한식당 추천의향	도시	점	한식당 추천의향	한식당을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비율	소비자 설문
	순추천고객지수(NPS)	도시	%	순 추천 고객 지수(NPS)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 NPS=추천고객(9.10 점)비율 - 비추천고객(0-6 점)비율	소비자 설문